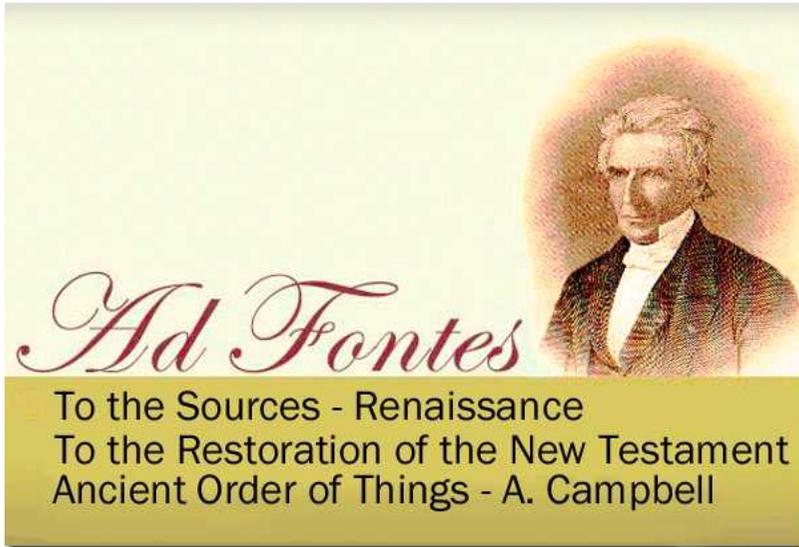


환원 운동과 그리스도의 교회

글: 조 동 호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환원운동(사)에서 묻고 확인해야 할 것들

1. 환원운동이 무엇을 하는 운동인가(두 가지)?
2. 환원운동의 두 가지 이상(理想)이 무엇인가?
3. 교회분열을 막고 두 가지 이상(理想)을 실현시킬 가능한 방안 두 가지가 무엇인가?
4. 환원운동의 두 가지 이상(理想)을 실현시킬 가능한 두 가지 방안이 안고 있는 잠재적 문제들 혹은 해석학적 문제들이 무엇인가?
5. 환원운동의 두 가지 이상(理想)을 실현시킴에 있어서 분열의 역사(分裂之歷史)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6. 환원운동의 역사가 대화, 화해, 일치, 평화의 중요성과 근본, 기본, 기준, 표준, 본래성, 순수성의 중요성 재고(再考)에 미친 혹은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차 례

I. 환원운동에 관한 오해/7	
‘환원운동’의 개념에 대한 오해	7
‘환원운동’의 이슈들에 대한 오해	11
II. 스톤-캠벨운동의 분열사/19	
A. 1906년까지의 분열	19
B. 1906년 이후의 분열	32
III.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태동의 신학 사상적 배경/47	
1. ‘하나의 교회’ 운동	47
2.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55
IV.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의 당위성/59	
1. 이 운동의 뜻풀이	59
2. 이 운동의 시작과 발전	60
3. 타 교단에서의 이 운동의 흔적	61
4.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의 당위성	64
V.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69	
1.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	69
2. 그리스도인의 운동	70

- 3. 신약성서교회 운동 72
- 4. 빛과 생명의 복음회복 운동 74

VI.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론/77

VII. 그리스도의 교회의 표준/85

- 1. 교회의 머리와 몸(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87
- 2. 교회의 기초(신약성경을 표준삼는 교회) 92
- 3. 교회의 지체들(오직 그리스도인뿐인 교회) 97
- 4. 빛과 생명의 복음(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102

VIII.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서적인 이유/111

- 1. ‘신약성경교회’이기를 고집한다. 111
- 2.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존중한다. 111
- 3. 사도들의 예배전통만을 따른다. 112
- 4. 하나님이 정하신 (신약의) 명칭만 사용한다. 113
- 5. 인위적인 신조나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 113
- 6. 신약성경의 명령을 지킨다. 114
- 7. 오직 성경만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는다. 115
- 8.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신약의) 규정만을 지킨다. 115
- 9. “우리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뿐이다.”고 믿는다. 116
- 10. 복음의 본질에는 일치를 주장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행한다. 116

I. 환원운동에 관한 오해 Misunderstandings on the Restoration Movement

글: 조동호 목사

『참빛』사로부터 ‘환원운동의 오해’에 관한 글을 부탁받았을 때, 망설여진 면도 없지 않았으나 이참에 환원운동에 관한 정확한 의미를 정리해 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듯싶어서 선뜻 응하게 되었다. 사실 환원운동에 관한 오해는 이 운동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들에게 많기보다는 오히려 이 운동에 관계된 사람들에게서 훨씬 많다. 그 주된 원인은 이 운동이 이 땅에서 자생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수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고 깊게 연구한 사람이 거의 없었고, 또 그럴만한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이 운동의 겉껍데기만 알고 속맛을 모른 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참에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환원운동’의 개념에 대한 오해

‘환원운동’이 무슨 운동인가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아마 십중팔구 ‘성서로 돌아가자’ 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몇 가지 점에서 이 운동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환원’의 좁은 의미, 곧 본래의 의미는 ‘신약성서으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신약성서으로 돌아가 기독교를 그것 본래의 순수함과 능력으로 되돌려놓자는 것이다. ‘신약성서로 돌아가자’와 ‘성서로 돌아가자’ 사이에는 신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16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이지 환원운동이 아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결과가 무엇인가? 신조(신앙고백)주의 또는 교리(신학체계)주의이다. 17-18세기에 이르게 되면, 교리들, 신앙고백들, 신학체계들이 유행하게 되고, 상징숭배(symbolatry), 교리속박, 루터교 교부신학,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 교리적 전통주의 등 교회의 고백적 논쟁과 교리적 해석의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이 시대의 해석은 단지 신학을 위한 시녀에 불과하였고, 결국 개신교에 끝 모를 분열과 교단화의 폐해를 가져왔다. 그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구분한 '신약성서교회운동'으로 가져간 사람들이 스톤-캠벨 운동가들이다.

또 다른 '성서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폐해는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엄격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기독교를 그것 본래의 순수함과 능력으로 되돌려놓지를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구약성서를 신약성서의 틀 안에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구약성서를 신약성서와 동등한 위치에서 해석하게 함으로써 기독교를 유대교적 기독교로 변질시켰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대인기독교인들(Messianic Jews), 시대구분론자들(Dispensationalists), 여호와증인들, 제칠일안식일재림론자들이며, 그밖에도 모세오경에 편중된 설교가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환원운동'은 '신약(New Testament)이란 핵심단어가 빠진 그냥 '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아닐 뿐 아니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도 아니다. '초대교회'가 아니라, '사도들의 교회로 돌아가자' 또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으로 돌아가자' 또는 '신약성서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여기서 '사도전통'이란 신약성서 27권을 지칭하는 제한적 의미이다. '초대교회'란 당대의 이단교회들, 곧 영지주의적 교회, 율법주의적 교회, 유대주의적 교회 등이 다 망라된 느낌을 줄뿐 아니라, 원시교회, 곧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웬지 과거지향적인 교회란 느낌을 주는 그런 용어이다.

둘째, 넓은 의미의 환원운동을 좁은 의미의 환원운동으로만

아는 것도 이 운동을 오해하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환원운동은 두개의 축을 가진 운동이다. 그 두 개의 축이 '환원'(restoration)과 '일치'(unity)이다. 이 두 가지 '환원'과 '일치'는 스톤-캠벨운동의 이상(ideal)이자 원칙(principle)이며, 목표(end)이다.

좁은 의미의 환원운동에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신약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을 '개혁운동' 혹은 좀더 구체적으로 '신약성서교회운동'(New Testament Church Movement) 혹은 '성서권위(Biblical Authority)회복운동'이라 부른다. 고전적인 표현으로는 '사도전통회복(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운동'이라 부른다. 직역하면 '옛 질서의 회복'이란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표현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로 이해해 왔거나 '성서로 돌아가자'로 잘못알고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표현들은 환원운동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환원운동은 신약성서 교회 운동이지, 초대교회 운동이 아니며, 신약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지, 엄격한 의미에서 성서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좁은 의미(狹意)의 환원운동은 넓은 의미(廣意)의 환원운동, 곧 손등과 손바닥처럼 두 개의 면 가운데 한 면에 불과하다. 넓은 의미의 환원운동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는 '진리 안에서의 연합'(Union in Truth)이다. 여기서 '진리'는 '환원'(restoration), 곧 신약성서권위회복과 사도전통의 회복에서 발견되어지는 진리이다. 따라서 신약성서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리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그리고 '연합'은 '일치'(unity)보다 울타리의 폭이 훨씬 넓은 개념이다. '일치'(unity)는 보수적인 개념이고, '연합'(union)은 에큐메니즘적인 뉘앙스가 풍기는 진보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따라서는 '환원'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일치'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환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일수록 좁은 의미의 '일치'를 더 선호하고, '환원'보다는 '일치'를 더 강조하는 사람들일수록 넓은 의미의 '연합'(union)을 선호한다. 어쨌든 간에 환원운동의 한 축인 '일치'와 '연합'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는 '그리스도인 일치'(Christian unity) 혹은

‘교회연합’이다. 앞에서 언급한 ‘진리 안에서의 연합’(Union in Truth)은 ‘진리 안에서의 일치’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사람들과 ‘진리보다는 연합’을 추구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을 중재하는 개념이다. ‘일치’든지 ‘연합’이든지, 이 중재적이고 화해적인 개념의 이상과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운동이 ‘그리스도인 운동’(Christian-Only Movement)이다.

따라서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표어 두 가지는 ‘신약성서교회운동’(New Testament Church Movement)과 ‘그리스도인 운동’(Christian-Only Movement)이다. ‘신약성서교회운동’은 ‘진리’(사도전통에로의 환원)를, ‘그리스도인 운동’은 ‘일치’ 혹은 ‘연합’을 추구하는 스톤-캠벨운동의 이상(ideal)이자 원칙(principle)이며, 목표(end)이다.

셋째, ‘환원’이란 말이 앞에서 언급된 뉘앙스들 때문에 오늘날에는 ‘환원운동’이란 표현을 억제하고, ‘스톤-캠벨운동’(Stone-Campbell Movement)이란 중립적인 호칭을 쓰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는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무악기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스톤-캠벨운동’은 두 가지 원칙들, 곧 ‘사도 기독교권위’와 ‘그리스도인 일치 의무’ 사이에서 빚어진 갈등을 아우르는 호칭이다. 따라서 ‘환원운동’이란 어휘가 이 운동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운동을 오해하는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를 이 운동의 유일한 호칭으로 아는 것도 오해이다. 본래 환원운동은 이 운동권에 속한 성도들을 ‘제자들’(Disciples) 혹은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 불렀다. 영어권에서는 공동체를 호칭할 때, 구성원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단연 우세한데, 이 맥락에서 나온 이름이 ‘그리스도인의 교회’(Christian Church)이다. 이 이름은 ‘그리스도인 운동’(Christian-Only Movement)의 줄기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의 소유주 개념의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바울서신 로마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란 이름은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시고, 그것을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자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이 이름은 '신약성서교회운동'(New Testament Church Movement)의 줄기에서 나온 것이다.

오늘날 미국의 스톤-캠벨 운동은 세 개의 파로 나뉘져 있는데, 이들은 각각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로 불린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를 단수(총회 개념)로 표기한다는 점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서는 '교회'를 복수(개 교회 혹은 회중교회 개념)로 표기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보수진영인 무악기 교회들을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보진영인 제자(파)들의 교회를 말하며,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독립(중도) 교회들을 말한다. 보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신약성서교회 회복을 통한 교회일치를 기치로 삼고 있고, 진보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신약성서교회의 회복보다는 교회연합 또는 에큐메니즘을 기치로 삼고 있다. 독립(중도)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신약성서교회의 회복과 교회일치의 균형유지를 기치로 삼고 있어서 '진리 안에서 연합'(union in truth)을 주장한다.

'환원운동'의 이슈들에 대한 오해

'환원운동'의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치고, '환원운동'의 이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한다.

먼저 예배 시에 악기 쓰는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며,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이슈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한다.

예배 시에 악기사용을 금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만의 이상한 관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다. 예배 시에 악기를 사용하는 전통은 서방교회 즉 가톨릭교회 전통이다. 개신교회가 가톨릭교회의 줄기에서 나왔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예배 시에 악기사용을 금하는 전통은 동방교회, 일부 개신교(북미주 개혁주의 장로교회 등), 유대교 정통파의 전통이다. 동방교회의 경우 희랍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모두에서 예배 시에 악기사용을 금한다. 미국과 캐나다에 산재한 북미주 개혁주의 장로교 교단과 스코틀랜드의 일부 개혁교회들, 특히 칼뱅과 닉스 전통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서』에 의하면, 예배용 찬송으로 시편에 고유한 운율을 사용하여 불렀고, 악기의 사용은 금하고 있다. 장로교회들의 경우, 19세기 이후 교회음악의 발전과 함께 예배 시 악기사용이 허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대교는 성전파괴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성전파괴이전에는 시편에 나타난 대로 예배 시에 악기사용이 허용되었으나 성전파괴이후 회당예배의 발전과 더불어 악기사용이 금지되었다. 오늘날에는 미국에서 시작된 개혁주의 유대교에서만 예배 시에 악기를 사용하고, 정통파와 보수파에서는 아직도 예배 시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악기사용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악기의 음을 맞추다든지 하는 것은 안식일 법에서 금하는 창조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

예배 시에 악기를 쓰지 않는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은 보수성향이 강한 미국 남부지역들, 특히 텍사스주와 테네시주 등지에 산재한 1만개 이상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다.

이들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이 예배 시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한 가지는 사회문화적 설명이다. 미국의 무악기 교회들은 대다수 그들 남부 시골교회들이 직면했던 19세기 사회상황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예문제에 연루된 남북전쟁과 지역파벌주의(sectionalism)가 그들의 특질(ethos)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좀더 풍성하고 도시 공업화된 북부와 더 가난하고 대부분 발전하지 못한 시골지역인 남부사이에서 '제자들'(Disciples, 제자파와 독립파가 갈라지기 이전 호칭)과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사이에 분열을 재촉하는 잔존하는 '문화적 갭'(cultural gap)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예배 시에 악기음악을 사용하는 이슈는 전적으로 해석학적 갈등으로써가 아니라, 오르간이나 멜로디언과 같은 호사를 솔직히 누릴 수 없는 남부지역 회중들의 견해를 달리한 표현으로써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 가지는 무악기의 진짜 이슈가 성서권위의 적용문제라는 것이다. 성서권위의 상세한 적용, 이를테면, 신약성서가 침묵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궁극적으로 '무악기 주창자들'은 '편리의 원칙'(principle of expedience)을 거부하고, 침묵을 금지로 해석하였다. 여기서 '편리의 원칙'이란 개혁가들이 의존한 세 가지 표준 가운데 비본질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을 말한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은 비본질에 속하는 신약성서가 침묵하는 부분을 금지로 보았다. "성서가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것을 침묵한다."에서 침묵을 금지로 해석한 것이다.

둘째, 침례를 신앙고백의 하나로 보지 않고, 행위로 보는 것은 침례를 오해하는 것이다. 침례가 구원과 무관하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거부하고, 교리적 시각에서 색안경을 쓰고 보려는 네거티브 전략이다.

250년 키프리아노스 시대에 로마에서 병상침례가 있기는 하였

어도, 오늘날의 약식세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십자군 전쟁 당시 군인들에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행하려 다보니까 생겨난 것이다. 십자군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때인 12세기경에 십자군을 모집함에 있어서 일일이 침례를 주기가 어려워 약식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고,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행한 『그리스도교 대사전』(1972)에도 “초기 교회에 있어서 적어도 12세기경까지 세례는 ‘침례’가 보통이었다. 그 후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물을 뿌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했다. 그 이유는 병자와 유아를 침수시키기 어렵다는 데서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헬라어가 모국어였던 동방교회 특히 희랍정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신념이 유독 강하다. 그들은 초기교회의 전통 그대로 물속에 세 번 담그는 침례를 시행하고 있다. 초기교회 때의 침례방식에 있어서 세 번 물속에 담갔다는 기록은 『사도전승』이란 책에도 있다.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침례대신에 세례를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침례가 성서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성서나 역사 모두에 무지하거나 ‘작지만 순(順)한’ 집단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일 것이다.

스톤-캠벨운동권에서는 유아세례와 약식세례를 배제하고 성서적인 ‘신자의 침례’(believer’s baptism)를 시행하였다.

침례의 행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침례를 받을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수정난이 먼저 만들어져야 출산이 가능해지는 것과 같다. 믿음을 수정란에, 침례를 출산에 비교할 수 있다. 또 믿음을 사랑에, 침례를 혼인에 비교할 수 있다. 사랑에 따라서는 출산보다는 수정 그 자체나 혼인보다는 사랑 그 자체에 더 큰 비중을 두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아무리 중요하고, 수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혼인이나 출산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부부로서 또는 한 인간으로 출발할 수가 없다. 참고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침례

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침례 때의 서약을 선민서약 즉 '신약'(new covenant)으로 암시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하나님과 부부서약을 행함으로써 구약의 선민이 되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례서약을 통해서 신약의 선민이 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정란을 생명체로 인정하여 낙태를 금하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확신은 매우 귀하고 소중하다. 그렇다고 해도 수정란이 배아가 되고 태아가 되어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이 무시 될 수 없듯이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과정 또한 매우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믿음으로부터 침례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한 과정이다. 수정부터 출산까지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듯이 믿음부터 침례까지의 과정 또한 그러하다. 출산을 통해서 한 나라의 시민이 되어 완전한 인간에로의 성장을 시작하듯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이를 신학에서는 '시작된 종말' 또는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알렉산더 캠벨을 '물중생론자'로 보는 것은 그를 크게 오해하는 것이다. 알렉산더에게 있어서는 침수세례와 약식세례의 차이가 구원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하냐, 불완전하냐의 문제였다. 캠벨은 침수세례를 받은 자와 약식세례를 받은 자와의 차이를 온전한 신체를 가진 자와 생명(영생과 구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신체의 일부가 불구인 자로 비교하였다. 침례와 구원에 관한 캠벨의 이런 명확한 결론에서 나온 표어가 "우리만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인들뿐이다(We are not the only Christians, but Christians only.)"였다. '환원운동'의 두 가지 면들 가운데 한 면으로 펼쳐지는 '그리스도인 운동'(Christian-Only Movement)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셋째, 매주일 행하는 주의 만찬을 가톨릭예배의 회귀로 보는 것은 오해이다. 매주 혹은 예배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행하는 전통교회들이 많지만, 스톤-캠벨운동권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스톤-캠벨운동권에서는 간략하고 단순하면서도 오로지 기념과 회상으로써만 주의 만찬을 행한다. 성체신학, 공존설, 임재설 등을 거부하고, 긴 전통적인 예전 또한 거부한다. 순교자 저스틴이 150년경에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에게 보낸 '변증서'(The First Apology)에서 보듯이, 집례자가 간단하게 주의 만찬에 대해서 묵상메시지를 전하고, 떡과 물이 희석된 포도주에 대한 감사기도를 올린 후에 그것들을 참석자들에게 분배하고, 또 참석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배달한다.

넷째, 목회자의 호칭이 '목사'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목사'라는 호칭은 '사제'라는 말을 '목사'로 바꾼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처(Martin Bucer/1491-1551)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미사'를 '주의 만찬'으로 '제단'을 '성만찬상'으로 바꾼 개혁가였다.

성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지역교회의 불박이 목회자들은 '장로'들이었다. 이 '장로'가 나중에 가톨릭교회와 동방교회 등에서 '사제'(제사장)로 불리게 되었다. 목회자를 '사제'로 부른 이유는 그들의 예배가 떡과 포도주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예배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톨릭교회, 동방교회, 성공회 등에서는 장로들이 목회자들이고, 그들에 대한 호칭이 '사제'들이고, 따라서 그들의 교회에서는 평신도 장로들이 없다. 집사들도 평신도급이 아니라, '부사제' 또는 '보사제'급으로 보면 틀림없다.

그리고 '장로'의 역할은 두 가지로 사도행전에 밝혀져 있는데, '목양'과 '치리'이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목자'이다. '목자'는 다시 '목사'라는 높임말로 불리게 된 것이다. 영어 'pastor'의 뉘앙스는 '목양자'이다.

그런데 '전도자'는 순회목회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지역교회 불박이 목회자인 '장로'와는 달리, 지역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떠돌이 목회자들 가운데 한 부류를 지칭하는 말이 '전도자'였다. 요즘처럼 목회자들이 개 교회들에 초빙을 받아서 일정 기간 섬기다가 또 다른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떠나고 하는 식의 상황이라면, '전도자'라는 호칭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 스톤-캠벨운동권에서는 가장 초창기부터 사제의 권위가 그대로 답습된 'pastor'(목사) 혹은 'reverend'(성직자)란 호칭을 쓰지 않기로 성명을 발표했고, 그 대신에 'minister'(섬기는 자)란 호칭을 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안수에 관한 오해이다. 전통적으로 전통교회들에서 사제들(집사와 장로들)은 남성들이었다. 이 전통은 구약시대 제사장의 전통에서 그대로 답습되어진다. 예배의 제사개념(미사 곧 성만찬 예배를 제사로 보는 전통교회들의 견해)이 바뀐 16세기 종교개혁이후에도 이 전통에는 변화가 없었고, 시대가 바뀌고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증대된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성서해석상의 문제로 불거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분명 바울서신에 명시된 부분들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보수 정통주의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회당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을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전통이 하나님의 뜻인지, 유대교나 고대 그레코로만시대의 문화적 특징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끝이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보수적인 스톤-캠벨운동권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랫동안 여집사 조차도 인정치 않고 있다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부터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88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 독립과 그리스도의 교회들 가운데 약 10%가 여집사를 두고 있으며, 그 수는 약 8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약 1%에 해당하는 교회가 100여명의 여장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약 38%의 교회가 960여명의 여교역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 여교역자들은 대부분 교육, 음악, 초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며, 아직 부목이나 원목으로 사역하는 여교역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여성의 교회에서의 위치는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Glenn M. Zuber, "Results of a 1988 Survey: Women as Deacons, Elders, and Ministers," *The Christian Standard*(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August 6, 1989), pp. 8-9.]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환원운동의 오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독자들 가운데는 필자의 의견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견이나 답이 다르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심사숙고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만한 시간이 농익었기 때문이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때가 차면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주일학생이 자라면 학생부를 거쳐 성인이 되고 그가 교회의 중진이 되어 봉사하게 되듯이 지금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교회들과 당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 주실 것이라 믿는다.

II. 스톤-캠벨운동의 분열사

A History of Schisms among Christians(Disciples)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조동호 목사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스톤-캠벨운동만으로 따진다면, 이 운동은 3세기 쯤에 들어서 있고, 오켈리와 라이스 해거드의 공화감리교회운동 등을 포함하면 4세기 쯤에 들어서 있는 셈이다. 그러나 헛수만으로 따진다면, 2백년이 조금 넘었다. 그 운동의 절반이자, 20세기가 되는 1900년에 스톤-캠벨운동은 미국인구 증가율의 두 배나 더 빠르게 성장하여 한 해 동안 무려 1천 개 교회가 추가되었다고 한다. 교회가 한 주에 거의 20개씩 증가한 셈이다. 만일 뒤따른 분열이 없었다면, 50년 후인 20세기 중반까지 이 운동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미국에서의 교인수가 4천에서 6천만 명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1900년은 다른 한편에서는 이 운동이 두 갈래로 갈라진 분수령(1906년)에 몇 걸음만 남긴 해였다.

조직은 뭉쳤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뭉치면서 발전한다. 흥망성쇠에서 흥성(興盛)은 뭉칠 때이고, 망쇠(亡衰)는 흩어질 때이다. 그렇다고 조직의 분열이 반드시 망쇠의 길인 것은 아니다. 필요한 분열은 분가(分家)와 같아서 흥성으로 이어지는 성장통에 해당된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분열이지만, 좋은 분열은 자식이 분가하는 것과 같아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다. 오늘날 교계에서 쓰는 '연합'이란 말은 교리와 신념의 일치가 아니라, 다양한 교리와 신념들의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연합이다. 일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연합도 중요하다.

A. 1906년까지의 분열

1906년은 스톤-캠벨운동(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출범한지, 대략 100년 만에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쪼개진 해이다.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이 '제자들'이란 말을 선호하고, 발톤 스톤(Barton W. Stone)과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y), 애브너 존스(Abner Jones, 의사)와 엘리야스 스미스(Elias Smith)는 '그리스도인'을 선호하였지만, 스톤-캠벨운동의 그리스도인들을 흔히 '그리스도의 제자들' 혹은 줄여서 '제자들'이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미국의 백악관자료는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의 종교를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명기하였는데, 이는 가필드가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 소속이란 뜻이 아니다. 그는 알렉산더 캠벨과 동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알렉산더는 개인적으로 "제자들"(Disciples)을 선호하였지만, 공식적인 호칭에서는 "그리스도인"(Christians)을 썼다. 예: 그리스도인 침례, 그리스도인 침례자, 그리스도인 체계 등.

1. 스톤-캠벨운동은 초기부터 분열 속에서 발전하였다.

첫째, 스톤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스프링필드 장로회(Springfield Presbytery)를 결성했다가 1804년 6월 28일 해체를 선언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Last Will and Testament of Springfield Presbytery)에 서명했던 5명 가운데 스톤만 남고 4명은 떠났다. 리처드 맥니마(Richard McNemar)와 존 던래비(John Dunlavy)는 1805년 봄에 서부에 파송된 셰이커교도(Shaker) 선교사들과 접촉한 후 그들의 추종자들과 함께 셰이커교도가 되었다. 이후 규정집의 채택을 요구한 존 톰슨(John Thompson)과 로버트 마샬(Robert Marshall)이 이를 반대한 스톤과 결별하여 1811년 3월 장로교회로 회귀함으로써 스톤만 그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로 남게 되었다.

둘째, 캠벨의 '제자들' 운동의 경우, 그리스도인들의 연합보다 신약교회로의 환원에 더 강한 의지를 표출하였다. 부친 토마스가 1809년에 『선언과 제언』을 발표할 때만 해도 아들 알렉산더는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부자간에 견

해의 차이가 생겼다. 1809년 8월 17일 창립된 ‘워싱턴 그리스도인 협의회’(Christian Association of Washington)는 교회 연합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지, 교회나 교단은 아니었다. 그러나 협의회는 1811년 5월 4일 브러쉬 런에서 4명의 집사와 함께 토마스를 장로로, 알렉산더를 설교자로 선출함으로써 교회로 전환하였고, 1815년 가을에는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에 가입하였다. 1923년에 알렉산더는 동 협의회에서 탈퇴하고 웰스버그 교회(Wellsburg Church)란 이름으로 ‘마호닝 침례교 협의회’(Mahoning Baptist Association)에 가입하여 「그리스도인 침례자」(*Christian Baptist*)를 발간하였다. 1812년에는 약식세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재침례를 받았으며, 1816년 “율법에 관한 설교”를 하였다. 이런 일련의 행적은 토마스가 추구했던 연합에서는 멀어지고, 신약교회회복에는 다가서는 것이었다. 40대말이었던 부친 토마스는 신약교회회복이라는 교회개혁을 추구하는 20대 초반의 아들 알렉산더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그의 뒤로 물러섰다. 교회연합을 추구했던 토마스는 워싱턴 그리스도인 협의회가 독립교회인 브러쉬 런 교회로 재편되는 것에 대해서 실망과 서운한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알렉산더는 1830년에 침례교단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면서 탈퇴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끌었다. 침례교회로부터 밀려난 것은 알렉산더와 그의 ‘그리스도인들’ 혹은 ‘제자들’에게는 기회였다. 이처럼 두 개의 환원의 이상인 일치와 환원은 처음부터 갈등을 겪었다.

셋째, 시드니 리그돈(Sidney Rigdon)은 1825년 초에 캠벨의 「그리스도인 침례자」에 실린 32개의 시리즈 기사, “옛 질서 [사도적 전통]에로의 회복”(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에 영향을 받고 캠벨의 신약교회 운동에 합류하여 큰 힘을 보탠 인물이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의 지속성과 공산주의식 공동체를 주장함으로써 캠벨과 충돌하였다. 결국 그는 1830년 10월에 네 명의 모르몬교 선교사들을 만난 후, 1844년까지 조셉 스미스(Joseph Smith)의 가장 영향력 있는 측근이 되었고, 여러 회중들을 모르몬교에 가입시켰다. 그러나 1844년 일리노이

주 카르타고에서 스미스가 군중들에게 살해된 후, 브리검 영(Brigham Young)과의 주도권 쟁탈에서 밀려나 생애 마지막 26년을 불행하게 보냈다.

넷째, ‘다섯 손가락 시연’의 복음전도자로 유명세를 탄 월터 스코트(Walter Scott)는 전천년설과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의 휴거설을 지지함으로써 캠벨과 갈등을 겪었다. 스코트는 스톤-캠벨운동에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름을 쓸 것인지, “제자들”이란 이름을 사용할 것인지를 놓고 대립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스코트는 캠벨이 자신을 환원운동권내에서 2등 시민처럼 대우하고 있으며, 옛 복음(사도적 전통)을 회복하는 일에 끼친 자신의 역할이 적절히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심지어 스코트는 밀러의 전천년설을 지지하면서 동료 제자들에게 1842년 10월에 “그들이 예언의 말씀에 무지하다”며 꾸짖었다. 그러자 캠벨은 1843년 1월에 “지성과 영향력이 남다른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밀러의 사색에 빨려들었다”고 탄식하였다. 밀러의 휴거설에 대한 1차 예언(1843년 3월 21일)과 2차 예언(1844년 10월 22일)이 모두 빛나가자, 월터 스코트는 캠벨보다 한층 더 후천년설의 지지자가 되었다. 1830년에 시작한 「천년왕국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에서 보듯이, 캠벨은 스톤-캠벨운동이 새천년왕국을 이 땅에 개방하는 사역이라고 보았다. 캠벨의 「천년왕국의 선구자」와 함께 스톤의 「그리스도인 전령」(*Christian Messenger*)은 이들 초기 개혁가들의 후천년설적인 역사인식을 들여다보게 하는 제호들이다.

다섯째, 뉴잉글랜드 주에서 침례교인 애브너 존스와 엘리야스 스미스는 ‘그리스도인 연맹’(Christian Connection)을 설립하여 그리스도인들 운동을 펼쳤다. 특히 스미스는 자신이 1808년에 창간한 「복음 자유의 전령」(*Herald of Gospel Liberty*)에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신약성서만을 받아들임으로써 유럽에서 건너온 교단들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동년에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버지니아 주와 켄터키 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제임스 오켈리의 '그리스도인들'(1794)과 발톤 스톤의 '그리스도인들'(1804)이었다. 오켈리와 라이스 해거드(Rice Haggard)는 감리교 목회자들로서 감독 애즈버리(Asbury)의 독재에 반발하여 노스캐롤라이나 주 매나킨타운(Manakin Town)에서 1793년 공화감리교회를 조직하였으나 새로운 교단이 교회 분열의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존교단들에 또 하나의 교단을 추가하는 것으로 여겨 1801년에 해체하였다. 그들은 신약성서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실천에 충분함으로 더 이상의 신조나 규율이 필요 없다고 보았다. 그리스도이외에 교회의 머리가 없으므로 회중정치를 표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뉴잉글랜드 주 버몬트에서는 1800-1803년에 침례교인 애브너 존스가 뉴햄프셔에서는 침례교인 엘리야스 스미스가 '그리스도인' 이외의 다른 이름과 성서이외의 어떤 법규도 부정하였고, 켄터키 주 버본 카운티 케인 릿지에서는 발톤 스톤이 1804년에 자신들을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으며, 그들의 모임을 '그리스도인의 교회'라 칭하였다. 1810년에 이들 그룹들은 자신들이 하나임을 선언하였고 지지자들이 2만 명에 달하였다. 그들 교회의 명칭은 '그리스도인의 교회'(Christian Church)였다. 그러나 1817년에 엘리야스 스미스는 만인구원론자가 되어 떠났고, 애브너 존스는 의사로 활동하면서 '뉴잉글랜드 그리스도인 연맹'(New England Christian Connection)의 교회를 세웠다. 1832년 1월부터 스톤의 서부지역 그리스도인들이 오하이오 벨리의 캠벨-스코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을 시작하였을 때, 동부지역의 오켈리와 존스-스미스 운동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동부지역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회심)체험, 연4회 주의 만찬 시행, 반(反)삼위일체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캠벨-스코트 운동과 갈등을 빚었다. 같은 이유로, 스톤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약 절반 정도가 캠벨과의 합류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 연합에 가장 크게 반대한 사람은 오하이오 주의 매튜 가드너(Matthew Gardner)였다. '그리스도인 연맹'은 1931년에 회중교회와 합병하여 '회중

그리스도인의 교회'(Congregational Christian Church)가 되었고, 1957년에 '복음주의 개혁교회'(Evangelical and Reformed Church)와 합병하여 최종적으로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United Church of Christ)가 되었다. 오늘날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와 합병을 전제로 많은 부분에서 연합하고 있다.

2. 스톤-캠벨운동은 이탈세력에도 불구하고 더 큰 연합세력을 키워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환원의 이상과 호소들은 일치의 조건을 재고시켰다.

첫째, 스톤의 그리스도인들과 캠벨의 제자들이 켄터키 주 렉싱턴에서 만난 것은 1831년 12월 31일 힐 스트리트(Hill Street)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였다. 이 무렵 스톤의 운동은 '그리스도인 연합'(union of the Christians)이었고, 캠벨의 운동은 '개혁자들'(Reformers) 혹은 '제자들'(Disciples)로 알려져 있었다. 이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 인물은 존 로저스(John Rogers)였고, '제자들'을 대표한 자는 "라쿤(너구리)" 존 스미스(John Smith)였다. 이날 모임에서 연합을 강조한 스미스의 감동적인 설교가 있던 후 스톤이 몇 가지 코멘트만을 한 다음, 양측의 대표들이 악수를 나눔으로써 역사적인 스톤-캠벨운동의 시작을 선포하였다. 이 두 진영의 교회들 사이의 연합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존 스미스와 존 로저스는 여러 해 동안 함께 교회들을 순회하였다.

둘째, 1830년에 캠벨의 제자들이 침례교회와 완전히 결별하고, 1832년 1월 1일부터 스톤의 그리스도인들과 합류하기 시작한 스톤-캠벨운동은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고, 선교증진을 위해서는 교회들 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1849년에 신시내티에서 창립된 '미국 그리스도인 선교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ACMS)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고,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선교를 위한 조직이었다. 알렉산더 캠벨은 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

선교회 조직은 강제성을 띤 조직이 아니었다. 편의성과 견해의 문제였고 복음전도를 위한 수단이고 방편이었다. 개 교회가 선교회를 후원하고 안하고는 자유였다. 하지만, 선교회조직에 대한 반발이 이듬해인 1850년에 악기사용(예배 때)과 함께 터져나왔고 논쟁으로 이어졌다. 논쟁은 교회주의와 교파주의를 경계하는 보수주의와 지나친 개인주의와 파벌주의를 우려하는 진보주의로 갈라졌다. 진보주의자들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협력사역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회중의 권위를 위협하는 비성서적 조직은 미국의 개척자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뿐 아니라, 보수주의자들은 지역교회 이외의 조직은 그 어떤 것도 성서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 와중에 ACMS가 1863년에 연방군(북군)을 지지하자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 톨버트 패닝(Tolbert Fanning)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74년 '그리스도인 여성 선교회'(Christian Women's Board of Missions, CWBM)와 1875년 '해외 그리스도인 선교회'(Foreig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FCMS)가 조직되었다. 연이어 '교회 확장 위원회'(Board of Church Extension), '전국자선협회'(National Benevolent Association), '목회 구제 위원회'(the Board of Ministerial Relief)와 같은 선교단체들(agency)과 선교회들(societies)도 설립되었고, 이로 인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불화는 1906년이 될 때까지 지속되고 심화되었다.

셋째, 1892년 가을 예일대에서 수학하는 5명의 스톤-캠벨운동의 제자들이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끼리 조직을 하나 만들자는 뜻을 모았고, 이들 대부분이 시카고대학으로 옮겨 학위과정을 밟고 있었다. 1894년에 시카고대학에 제자들교회신학원(Disciples' Divinity House)이 세워져 시카고대학 신학원에 재학하는 스톤-캠벨운동의 제자들에게 숙식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단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1896년 10월 19일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서 14명의 창립회원들로 캠벨교육기

관(Campbell Institute)을 세웠다. 이는 과거 25년간 큰 대학교들에서 진행된 신지식, 즉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의 산물인 성서비평과 재해석의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스톤-캠벨운동을 현대신학의 결과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캠벨교육기관이 설립된 목적이었다. 따라서 캠벨교육기관은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톨버트 패닝, 데이비드 립스콧, 모세스 라드(Moses E. Lard), 다니엘 서머(Daniel Sommer) 등의 보수주의자들에게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분리시킬 명분을 제공한 셈이었다.

넷째, 불화의 중심에는 예배 때 악기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1850년에 점화된 이 불화는 1906년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이끈 데이비드 립스콧과 몇몇 지도자들이 미국 종교인구조사국에 무악기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들’(the Churches of Christ)이라는 명칭으로 따로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분열의 방점을 찍었다. 동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몇몇 지도자들도 미국 종교인구조사국에 요청하여 남아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들’(the Disciples of Christ)이란 명칭아래 열거시킴으로써 스톤-캠벨 운동은 출발한지 1세기만에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갈라졌다. 그러나 처음 1세기 동안은 여러 쟁점과 불화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언급한바와 같이 매력적인 환원의 이상과 호소들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종교개혁 운동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3. 스톤-캠벨운동권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들은 우파에 속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당파성(편가름)을 강화하여 분열을 낳았다. 우파 개혁가들이 촉발시킨 분리는 거짓 연합(평화)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신학적 논쟁들 가운데 한 가지가 성서가 침묵하는 것, 성서가 명령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것을 신앙과 실천의 본질로 보아 금지할 것이냐, 아니면 비 본질로 보아 허용할 것이냐는

것이였다. 여기서 데이비드 립스콧과 「복음 주창자」(*Gospel Advocate*)는 본질로 보아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고, 아이작 에레트(Isaac Errett)와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은 비 본질로 보아 허용(자유)을 주장하였으며, 에레트의 허용의 범위를 개리슨(J. H. Garrison)과 「그리스도인-복음전도자」(*Christian-Evangelist*)는 침례에까지 확대시켰다. 벤자민 프랭클린, 톨버트 패닝, 데이비드 립스콧, 모세스 라드, 다니엘 서머 등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예배 시 악기 사용, 선교회, 주일학교 등을 본질로 보아 엄격하게 금지한 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비 본질로 보아 허용하였다. 여기에 노예제도문제와 남북의 문화사회적 갈등까지 더해져 1906년에 스톤-캠벨운동은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갈라졌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시 진보와 보수로 나뉘었다. 1968년에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를 위한 가(假)계획'을 채택한 진보진영은 비 본질의 범위를 느슨하게 확대시켜 성서비평, 열린 회원제, 에큐메니즘, 교단재구성 등의 좌파적인 행보로 환원정신을 버리고 연합에 치중하였고, 1920년대 말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진보적인 행보에 환멸을 느껴 그들로부터 독립한 보수주의 중도파들은 비 본질의 범위를 엄격하게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워나갔다.

둘째, 스톤-캠벨운동의 두 가지 이상은 환원과 일치 또는 연합과 환원이다. 달아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어렵듯이, 환원과 일치를 동시에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기독교는 과거 2천년 동안 진리의 내용을 공동체의 울타리의 폭과 회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도구(test of fellowship)로 삼아왔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수진영은 연합이란 말보다 일치란 말을 선호해왔다. 연합이 자기 울타리 바깥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반면, 일치하는 울타리 내부 사람들의 믿음과 실천의 일치를 의미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모세스 라드(Moses Lard)로서 그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형제'를 침수세례자에 국한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

의 교회들은 연합보다는 환원을 통한 일치에 목표를 두고 있고, 근본주의에 가까우며,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는 환원보다는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 즉 정의, 평화, 창조보존(JPIC)의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는 진보주의에 가깝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진리 안에서의 연합(union in truth)에 목표를 두고 있는 보수주의에 가깝다.

셋째, 성서가 침묵하는 것들을 금지로 보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가 일리노이즈 주, 셸비(Shelby) 카운티, 샌드 크리크에서 1889년 8월 18일 주일 오후에 선포된 “제언과 선언”(Sand Creek “Address and Declaration”)이다. 이 성명서는 「옥토그래픽 리뷰」(*Octographic Review*)의 편집자이자 보수 중에 보수였던 다니엘 서머(Daniel Sommer)의 주도아래 샌드 크리크 교회 장로들이 참여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신약성서가 침묵하는 신제도들의 도입을 지지하는 형제들로부터 분리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 같은 신제도들에는 성가대, 선교회, 유급지역교회설교자, 주일헌금 이외의 기금모금 등이었다. 이날 주장사로 나선 다니엘 서머는 교회가 수행하는 사역에 편의를 제공하는 인위적인 이름(조직)들을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만일 신제도들의 수용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형제로 간주할 수도 없고 간주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선언하였다. 연합을 주창한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에 상반된 선언이었다.

넷째, 성서가 침묵하는 것들을 금지로 보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입장을 가장 잘 보여준 또 다른 사례는 예배 때의 악기사용에서 나타났다. 텍사스 주 포트워스에 복음전도자이자 사업가였던 조셉 클라크(Joseph Addison Clark)란 인물이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들 애디슨(Addison)과 랜들프(Randolph)가 있었다. 그들은 1871년에 쏘프대학(Thorp College)을 매입하여 1873년에 ‘애드린 남녀공학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20년 후 이 대학은 학생수가 445명이었다. 이 무렵 텍사스의 교회들에서는 예배 시 악기사용에 대한 논란으로 불화가 심화된 때였다. 이 논쟁은 부

자시간인 조셉과 애디슨까지 갈라놓았다. 부친 조셉은 무악기파로서 1893년 10월 26일 「복음 주창자」(Gospel Advocate)에 악기도입을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 그러나 아들 애디슨은 악기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1894년 2월 애드런 대학 전도 집회 때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드려 오르간 사용을 허용하였다. 2월 20일 애디슨이 인도하는 전도 집회 때 오르간 반주자가 반주를 하려고 오르간 앞에 앉아있었다. 이에 부친 조셉은 아들 애디슨에게 악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청원하였고, 아들은 거절하였다. 그러자 78세의 조셉 클라크는 140여명을 데리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났다고 전한다. 결국 악기 사용을 찬성하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이라고 불렀고, 반면에 아카펠라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이 불화로 인해서 학생 수가 급감하여 대학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다섯째, 성서가 침묵하는 것들을 금지로 보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입장을 교리적인 면에서 보여준 사례로는 아이작 에레트와 모세스 라드에게서 나타났다. 1862년에 아이작 에레트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믿음과 실천의 개요”(A Synopsis of the Faith and Practice of the Church of Christ)라는 소논문을 발표하였다. 1870년에는 “우리의 입장”(Our Position)으로 제목을 바꿔 출판하였다. 이것은 스톤-캠벨 운동의 주요 신앙들을 10개 항목으로 기술하고, 에레트가 당시 설교했던 디트로이트의 제퍼슨 애비뉴(Jefferson Avenue)와 보빈 스트리트(Beaubien Street) 교회의 회칙을 포함시킨 것이었다. 부임한 회중에게 환원운동의 주요 교리를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약과 신약성서의 권위; 신약성서 용어로 진술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위대한 사실들”은 진정한 기독교종교의 본질이 됨; 침례의 전제조건으로 믿음과 회개; 죄 사함을 위한 침례; 침수에 의한 세례,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요의 목적을 설명하였다. 에레트는 자신이 쓴 “믿음의 개요”가 신조가 아니며, 단지 중요한 종교의식에서 우리의 신앙과 목적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 신조가 아니라는 분명한 천명에도 불구하고, 몇몇 영향력을 가진 편집인들은 에레트와 그의 “믿음의 개요”를 공격하였다. 1863년 9월, 모세스 라드(Moses Lard)는 “40년 동안 분열적이고 악한 신조들의 성향에 반대하여 일해 왔던 사람들에게” 대한 공격을 야기하는 에레트를 비난하면서 그의 「계간지」(*Quarterly*)에 그 논문 전체를 다시 실었다. 라드는 그것은 표지 없는 신조, 즉 “풀밭 속에 있는 진짜 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에레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대부분 무시하였다.

여섯째, 남북전쟁은 스톤-캠벨운동의 그리스도의 제자들끼리 충부리를 겨뤄야하는 비극을 초래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반전내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미국 그리스도인 선교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 ACMS)가 1863년에 북군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전후에 공화당원으로서 하원의원과 20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가필드(James A. Garfield)는 알렉산더 캠벨과 가까운 사이로써 북군으로 참전하여 소장에까지 올랐던 인물이었다. 그가 지휘한 연대에는 그가 모병한 수백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소속의 젊은이들이 있었다. 그의 단점은 남부에 대한 강한 반감에 있었다. 마지막 통나무집 출신이었던 가필드는 대통령이 된지 200여일 만에 역시 통나무집 출신이었던 링컨에 이어 두 번째 피살자가 되었다. 반면에 발톤 스톤의 아들, 발톤 스톤 2세는 남군으로 참전하여 대령에까지 올랐고, 복음전도자 존 알렌 가노(John Allen Gano)의 아들 리처드 M. 가노는 1863년 말 준장으로 제대 후,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었다.

일곱째, 1830년 미국의 인구는 대략 1,280만 명이었고, 그 가운데 노예가 2백만 명 정도였다. 스톤-캠벨운동권내에서 남북전쟁이나 노예제도가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분열을 가속시킨 많은 요소들의 일부였던 것은 사실이다. 노예제도와 궁극적으로 남북전쟁 자체에 대한 논쟁은 악화되고 있는 이념적 문화적 요소들의 일부였으며, 그것들은 메이슨-딕슨 선

(Mason-Dixon Line: 남북전쟁이 임박하면서 오하이오 강과 함께 남부의 노예주와 북부의 자유주를 나누는 경계선)의 전역에서 스톤-캠벨 교회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의 분열을 한층 가속시켰다. 그만큼 노예제도를 놓고 찬반양론이 뜨거웠던 것이다. 노예폐지론자들 중에는 버틀러 대학교의 설립 총장이었던 오비드 버틀러(Ovid Butler) 변호사와 토마스 캠벨(Thomas)의 넷째 딸 제인이 있었다. 버틀러는 알렉산더 캠벨과 '미국 그리스도인 선교회'가 스톤-캠벨운동권의 분열을 막으려고 노예제도문제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자 크게 반발하였다. 그는 1859년에 강경한 노예폐지론자였던 캔자스 주 선교사 파디 버틀러(Pardee Butler)를 지원하기 위해 「복음 발광체」(*Gospel Luminary*)의 편집인 존 보그스(John Boggs)와 연대하여 '노스웨스턴 그리스도인 대회'(Northwestern Christian Convention)를 소집하여 별도의 '그리스도인 선교회'(Christian Missionary Society, CMS)를 조직하였다. ACMS의 회장이었던 아이작 에레트(Isaac Errett)가 파디 버틀러에게, 만약 그가 노예철폐에 대한 설교를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선교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이에 버틀러는 ACMS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대항해서 부자와 권력 있는 사람들” 편에 섰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1861년에 ACMS가 비공식적으로 연방군(북군)을 지지할 뿐 아니라, 1863년에 남부지역사람들을 무장한 배신자로 비난하는 강한 결의문을 통과시키자, CMS를 해산하고 ACMS와 통합하였다. CMS의 짧은 생존은 노예제도와 남북전쟁이 스톤-캠벨운동에 끼친 악영향을 보여준 것이었다. 제인은 남편 매튜 맥키버(Jane Campbell and Matthew McKeever) 및 시댁 식구들과 함께 노예탈출을 돕는 비밀조직(underground railroad)의 안전가옥(stations)을 운영하였다. 반면에 베이컨대학, 미주리대학교, 컬버-스톡튼 대학(Culver-Stockton College)에서 학장과 총장을 지낸 제임스 섀넌(James Shannon)은 노예제도를 성서적이고 사도적이라고 옹호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4.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일치의 중요성을 재고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그리스도의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비제도(noninstitutional) 교회들에 소속된 데이비드 에드윈 하렐 2세(David Edwin Harrell, Jr.)는 분열과정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취한 교리적 입장들은 신약교회 회복(환원)에 대한 헌신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남부 시골 교회들이 직면했던 사회적 상황과 남북전쟁 및 지역파별주의가 그들의 특질(ethos)을 형성한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역사가 빌 험블(Bill J. Humble)은 선교회논쟁에서 이슈가 지역 당파성을 강화시키고 분열시키는 일에 남북전쟁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파별적 이슈들의 쟁점이 환원운동의 이상인 일치와 환원의 대립관계였다고 보았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목표는 일치보다는 사도적 교회의 복원이었다.

셋째, 하버드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마친 그리스도의 교회들 소속의 리로이 개리트(Leroy Garrett)는 '스톤-캠벨 운동'(Stone-Campbell Movement)이란 학명을 처음 자신의 책 제목(1981)에 사용한 인물로서 일치보다는 환원이 스톤-캠벨 운동의 최우선의 신학적 동력이었다는 주장에 반발하면서 캠벨의 강조가 일치의 끈으로써 사도전통의 본질들 위에 있었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수많은 비본질 항목들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리로이 개리트, 리처드 휴즈(Richard Hughes), 게리 홀로웨이(Gary Holloway), 더글라스 포스터(Douglas A. Foster)와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들 소속의 학자들은 점차 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B. 1906년 이후의 분열

1906년에 스톤-캠벨운동(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갈라진 이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또 다시 1968년에 완전히 두 지류, 즉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로 갈라졌다. 그밖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 한 컵(One Cup)교회와 같은 그룹들이 새로 파생되었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 펠로십(Christ's Church Fellowship)이 파생되었다.

1.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내부 분열

첫째,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1만3천여 개이고, 교인들은 1백3십만 명 정도이다. 그 가운데 1천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60개, 5백에서 1천명 사이의 교회가 250개이다. 교회들 가운데 주류에 속하는 그룹이 전체 교회 수의 75 퍼센트, 전체 교인 수의 87퍼센트를 차지한다. 나머지 교회들은 4개의 소그룹으로 나뉘는데, 그 구분은 신학적인 것보다는 실제적 관행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첫 번째 소그룹은 1960년대에 분리된 비제도(Noninstitutional) 교회들로서 2,055개의 교회들을 차지한다. 그들은 교회이외의 모든 선교단체들과 시설 및 특수 사역을 거부하는 극단에 빠짐으로써 주류 그리스도의 교회들로부터 고립되었다. 주류 교회들과 비제도 교회들의 분열은 1950년대의 변화된 사회적 정치적 현실에서 비롯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미국의 주류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에서 분파적이고 종파적인 기질을 보였다. 그렇지만, 1950년대에는 양상이 달라져,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고, 도시교회들은 상향지향의 중산층 대학졸업자들로 채워졌다. 그들은 출석하는 교회의 능률과 위상을 높이려고 힘썼다. 수백채의 예배당들이 신축됨으로써 확신에 찬 새 이

미지와 자부심이 넘쳐났고, 신구제도들의 진흥, 선교후원, 미디어선교가 이뤄졌다. 반면에 비제도 교회들은 이 전환기에 스톤-캠벨운동에서 가장 갖지 못하고 가장 배우지 못한 계층에 주로 흥미를 끌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일어난 1963년의 분열은 그들이 처한 사회적 노선에 따라서 이뤄졌다. 두 번째 소그룹은 1,100개의 교회들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예배이외의 모든 분반활동에 반대하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성인들과 함께 공동예배에 참여해야한다. 세 번째 소그룹은 한 컵(One Cup) 교회로서 550개의 교회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들은 주의 만찬 때 사용하는 분잔에 반대한다. 또 일부 교회들은 분반활동에도 반대한다. 네 번째 소그룹에는 130개의 교회들이 속해 있다. 그들은 한 사람이 대부분의 설교를 맡아하는 것에 반대하며, 교회 내 다양한 지도자들이 상호 덕을 세우는 것을 강조한다. 이들 네 개의 소그룹들은 규모면에서 작은 교회들이고, 대부분 다른 그룹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들(International Churches of Christ)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1993년에 갈라져 나온 피라미드식 위계체제하에서 담당 훈련파트너에게 절대복종케 하여 제자훈련을 시키는 교회들이다.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에 430개의 교회들과 교인 수 135,000명을 갖고 있다. 플로리다 주 게인스빌(Gainesville)에 소재한 크로스로드스(Crossroads) 그리스도의 교회의 척 루커스(Chuck Lucas)의 캠퍼스사역을 통해 시작되었고, 그의 제자 킵 맥킨(Kip McKean)이 1979년 매사추세츠 주 렉싱턴(Lexington)으로 옮겨가 시작한 보스턴 그리스도의 교회의 이름을 따서 '보스턴운동'이라 불린다. 이 운동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침투해서 교회 내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보스턴으로 가서 재침례를 포함한 '개조'(restructuring)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주류 그리스도의 교회들과의 차이점들로는 피라미드식 위계구조, 훈련파트너에 대한 절대복종, 여성들을 섬기는 여성들의 사역, 예배 때 악기사용, 타 그룹 불인정 등이다.

셋째, 19세기말의 재침례 논쟁은 그리스도의 교회들 내부에서 있었던 것이었지만, 1906년의 분열뿐만 아니라, 1993년의 내부 분열로까지 이어졌다. 이 논쟁은 1890년대 오스틴 맥게리(Austin McGary)의 「확고한 터전」과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의 「복음 주창자」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써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갈라서게 하는데 일조하였다. 오스틴 맥게리는 죄 사함을 받는다는 분명한 지식을 갖고 침례를 받아야 옳은 침례라고 주장하였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베푸는 침례까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재침례를 주장하였다. 반면에 립스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침례를 받았다면, 침례를 어느 교단에서 받았던 상관하지 않았고, 재침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침례교회처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사함(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즉 교단에 가입하기위한 침례라면, 그것이 비록 침수세례일지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립스콤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오스틴 맥게리를 비롯한 재침례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행하는 침례를 침례교회와 같은 타 교단에서 행하는 침례와 동일한 것으로 싸잡아 비난하였다.

넷째, 이밖에도 세대주의 천년왕국설, 어린이집, 양로원, 캠퍼스사역, 체육관, 식당설비, 방송선교, 구제와 섬김 센터들에 대한 반대,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컨템퍼러리 예배, 성령의 은사 등으로 내부 몸살을 겪어왔다. 일찍이 알렉산더 캠벨과 윌터 스코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령론에 동료 로버트 리처드슨(의사)은 실망을 금치 못하였고, 그의 베다니대학의 제자 러셀(W. S. Russell)은 성령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캠벨을 비판하여 비난을 산바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스톤-캠벨운동은 은사적 현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1960년대를 휩쓴 은사적 현상들은 1960년대 말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젊은이들에게까지 관심을 갖게 하였다. 1960년대 중반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소속 젊은이들은

내슈빌,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에빌린기독교대학(ACC), 네브래스카의 요크(York)대학, 아칸소 주 서시(Searcy)에 있는 하딩대학 등에서 방언의 은사를 주장하였다. 1970년대 초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가수 팻 분(Pat Boone)은 은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 돈 핀토(Don Finto)가 설교했던 내슈빌 소재 벨몬트(Belmont)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석하는 다양한 사람들도 팻 분과 마찬가지로였다. 이런 움직임들은, 비록 전체 성도들의 약 5퍼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교회 지도자들과 대학관계자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 대부분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은사주의자 교회로 떠나갔다. 일부 대학생들은 오랄 로버트대학교(Oral Roberts University)나 리전트대학교(Regent University)로 전학하였다.

2. 그리스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분열

첫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1968년에 진보진영의 교회들이 가칭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란 이름으로 교단을 재구성하였고, 보수진영의 교회들은 192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진보진영의 교회들에서 빠져나와 독립교회의 형태를 취하다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의 교회란 교명을 쓰지만, 더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교회란 교명을 쓰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중도를 표방하며 독립파로 불린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갈라선 것은 신학적 이유보다는 도농(都農)간 격차, 노예제도문제, 남북전쟁과 같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지리적인 이유가 더 컸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떨어져 나온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즉 성서비평과 같은 진보신학, WCC의 전신이자 교단재구성의 과정으로 여겨진 연방교회협의회 조직 및 열린 회원제 때문이었다. 19세기 말부터 예일대, 시카고대, 하버드대와 같은 곳에서

신학을 전공한 제자들이 현대신학의 내용을 교회와 신학교들에 유입시켜 스톤-캠벨운동에 접목시킴으로써 불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이 일에 크게 공헌한 초기 인물들이 허버트 록우드 윌렛(Herbert Lockwood Willett)과 에드워드 스크라이브너 애임즈(Edward Scribner Ames)이었고, 단체로는 캠벨교육기관과 선교회 조직들이었다. 1907년 버지니아 주 노퍽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진보주의자들은 연방교회협의회에 가입하는 문제를 본회의가 아닌 별도의 집회에서 변칙으로 통과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연방교회협의회 창립교단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는 교단조직도 없고, 보수주의자들의 심한 반발로 인해서 부담금을 수년간 내지 못하였다.

둘째,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최초로 성서신학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독일에서 수학한 윌렛은 베다니대학을 나와 예일대에서 천재 구약학자 윌리엄 레이니 하퍼(William Rainey Harper) 밑에서 공부하다가 하퍼가 1891년 시카고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되어 전근하자 그도 시카고대학으로 옮겨가 1896년에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다. 하퍼의 권유로 윌렛은 시카고대학교 신학대학원(Divinity School)에서 공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학생들을 위해 제자들교회신학원(Disciples Divinity House)이 설립되도록 하였다. 윌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역사적, 사회과학적 성서해석 방법론을 소개한 인물로서 「그리스도인-복음전도자」(*Christian-Evangelist*)와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에서 보수주의의 보류였던 J. W. 맥가비(McGarvey)와 악의에 찬 논쟁을 펼쳤다. 보수주의자들은 1909년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그리스도의 제자들 100주년' 대회 프로그램에서 윌렛을 빼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오히려 대회기간에 일부 연사들이 대중연설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 신화라고 주장하여 대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였다. 자유주의 신학의 기수역할을 했던 에드워드 스크라이브너 애임즈(Edward Scribner Ames)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소속 목회자의 아들로써 드레이크대와 예일대를 거쳐 1895

년 시카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철학과 교수, 제자들교회 신학원 원장, 유니버시티 제자들 교회를 섬겼다. 존 듀이에 영향을 받은 애임즈는 기독교 신앙에 성서고등비평 및 경험주의와 실용주의의 원리들을 적용시켰고, 열린 회원제 논쟁에 개입되었다.

셋째, 베다니대학의 출신들 가운데 로버트 밀리건(Robert Milligan)과 J. W. 맥가비는 성서의 무오설을 주장하였다. 맥가비는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과 자신의 여러 저서들을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켄터키주 렉싱턴에 소재한 성서대학(College of the Bible)의 학장이었던 맥가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맥가비 세대가 모두 은퇴하자, 대를 이어 교수가 된 이들은 하버드에서 박사를 취득한 맥가비의 후계자 칼훈 홀(Calhoun Hall)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서고등비평에 동조하였다. 맥가비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6년 후인 1917년, 칼훈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성서대학에서 몰아내려고 하였으나 실패에 그쳤고, 오히려 그 자신이 교수직을 사퇴해야만 했다. 그 전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과 더불어,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내부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오랜 갈등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이후 칼훈이 겪어야 했던 힘겨웠던 삶은 보수주의가 애써 키워온 대학들과 교회들에서 밀려난 긴 여정의 축소판이었다. 1921년 12월에 보수주의자들은 “기독교의 근본 원리들”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환원 대회”(Restoration Congress)를 소집하여 진보주의자들을 맹렬히 비판하였다. 1922년 1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성서대회에서 R. C. 포스터(Foster)가 스톤-캠벨 운동 계열의 대학교수들이 지역교회들을 기만해서라도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여게끔 만들라고 학생들을 부추겼다고 말함으로써 불화를 키웠고, 동년 4월에는 피츠버그 성서대회에서 칼훈이 성서고등비평을 “과괴적인 비평학”으로 비판함으로써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로 나뉘지게 만들었다. 이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제휴된 대학들, 즉 밀리건 대학(Milligan College)을 제외한 모든 인문대학들과 다수의 신학교들이 진보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갔다. 보수주의자들은 현대신학에 편중된 이들 대학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어 대안으로 성서대학(Bible College)들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스톤-캠벨 대사전에 성서대학으로 소개된 대부분의 대학들은 2000년대에 이르러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목적으로 더 이상 성서대학이 아닌 기독교대학(Christian College) 혹은 기독교대학교(Christian University)로 정관을 변경하였다.

넷째, 열린 회원제(Open Membership)란 약식세례를 받은 신자들을 지역 교회에서 회원 자격으로 받아드리는 제도를 말한다. 스톤-캠벨운동에서 약식세례자의 그리스도인 지위는 잠정적이었거나 거부되었거나 수용되었다. 캠벨과 스톤과 에레트는 잠정적이었다. 캠벨은 약식세례자들에게 “경건한 미침수 그리스도인”이란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루넨버그 서신”(Lunenburg Letter, 1837) 논쟁을 촉발시켰고, 발톤 스톤은 침례를 수용할 때까지 포용하였으며, 에레트는 “오류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 노선에 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우리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일 뿐이다”(We are not only Christians, but Christians only!)는 표어를 갖게 되었다. 한편 모세스 라드를 필두로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침수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그리스도인들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을 포용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는 교제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양 지류들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열린 회원제를 철저히 배제시켰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윌렛과 애임즈를 포함한 진보주의자들은 열린 회원제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보수주의자들과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 1870년대 이전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배타적이고 고립적이며 승리주의적인 선교정책들을 써왔다. 그러나 1874년 ‘그리스도인 여성 선교회’(CWBM)와 1875년 ‘해외 그리스도인 선교회’(FCMS)가 설립된 이후로는 에큐메니컬운동에로까지

활동영역을 넓혀나갔다. 이들 선교단체들의 열린 회원제 수용은 1909년에 개최된 100주년대회 때 진보와 보수가 분열된 양상을 표출하였다. 1920년에는 중국 체류 선교사들이 연합 그리스도인 선교사 협회 집행 위원회(Executive Committee of UCMS)에 열린 회원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자 위원회가 비틀거렸다. 이 문제가 「그리스도인 표준」(*Christian Standard*)에 공개되자 심각한 갈등이 뒤따랐다. 보수주의자들이 이 문제와 연관된 선교사들의 소환을 1925년 오클라호마시티 대회와 1926년 테네시 주 멤피스 대회에서 연이어 요구했지만, 선교회의 임원들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중앙집권적인 조직들은 그것들을 지탱시키는 구성원들의 조절기능을 넘어서버렸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확신이 널리 확산되었고, 그것은 좌절감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결국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식 선교기관이자 1919년에 통합된 연합 그리스도인 선교사 협회(UCMS)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UCMS로부터 독립교회들이 소송을 당하였지만, 대부분 승소하여 개교회의 자치권을 인정받았다. 독립교회들은 UCMS를 대체할 선교방법을 찾다가, 이미 UCMS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몇몇 선교사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UCMS에서 후원을 받던 일부 선교사들도 탈퇴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수십 년간 이런 교회들의 네트워크를 특징짓는 “독립”(Independent)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다섯째, 열린 회원제의 수용이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을 촉발시킨 또 다른 사례는 1939년에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 제시 트라우트(Jessie Trout)에게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기사를 써서 UCMS에 보냈다. UCMS는 그 기사에 깊이 감명을 받아 인쇄하여 전국의 모든 그리스도인 여성 선교회에 보내어 그들의 월 집회 때 소개하도록 하였다. 그녀가 쓴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학식 있는 비평가들이 해외선교에 대해서 평가한 주된 비평의 한 가지가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민족의 종교들과

신앙들을 몽개버린 것이다. 다행하게도 다수의 오늘날의 선교사들은 동양종교들의 가치를 인정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의 문제들을 현재의 관점보다 우위에서 접근하지 않고, 열린 마음과 심정으로 한다. '여러분이 놓은 우수한 토대에서 수행하여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의 종교를 건설하자'고 그들은 말한다." 그녀는 또 유교와 불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분명코 이들 종교들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이었다. 오늘의 기독교는, 마찬가지로 분명코, 동양인 선지자들의 평범한 진리들과 가르침들을 발견할 수 있다. '만일 변화산체험이 동양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산에서 부처와 공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고 나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현대선교들은 기독교가 비기독교 종교들과 손을 맞잡을 수 있고 또 맞잡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불편한 상황은 제시 트라우트가 1949년 10월에 UCMS의 부회장에 선출되는 데까지 발전되었다. 이 사실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신문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인디애나폴리스의 미스 제시 메이 트라우트(Miss Jessie Mae Trout)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국제대회(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Disciples of Christ) 총회에서 어제 UCMS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미스 트라우트가 뽑힌 직위는 제자들 단체에서 가장 높은 것들 중의 한 자리이다."

여섯째, 보수주의자들은 UCMS와 같은 중앙집권적인 조직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대안으로 교회나 개인이 원하는 선교사에게 직접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식의 '직접 후원 선교'(Direct Support Missions)를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W. K. 아즈빌(Azbill, 1892)과 W. C. 커닝햄(Cunningham, 1901)은 이 직접 후원 선교 방식으로 일본에서 독립선교사들로 활동하였다. 한편 신시내티의 사업가 시드니 클라크(Sidney Clarke)가 남긴 재산이 1919년부터 이들 독립파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교회개혁과 발전에 쓰이기 시작하였고, 1921년까지 30개의 교회들이 개혁되었으며, 200여개의 기

존 교회들이 강화되었다. 클라크의 유증은 교회와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1922년에 법인 '클라크 기금'이 되었다가 1925년에 그리스도인 환원 협회(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CRA)로 발전되었다. 이때 이미 16개의 독립 선교회들이 가입되었다. 독립 선교사들이었던 필리핀의 레슬리 울프(Leslie Wolfe), 중국, 티베트, 미얀마 접경지의 러셀 모스(J. Russell Morse), 멕시코의 엔리케 웨스트럽(Enrique Westrup), 남아프리카의 C. B. 티투스(Titus), 일본 도쿄의 M. B. 매든(Madden)을 협력 지원하면서 해외 선교에 집중하였다. 신시내티기독대학교와 신학대학원도 1924년에 이 기관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그리스도인 환원 협회는 보수주의 교회들의 성장의 모판이 된 '그리스도인 봉사 캠프 운동'(Christian Service Camp Movement, 1927)을 지원하여 출범한지 2년 만에 14개 주에 14개의 캠프장이 들어서게 하여 매년 5백여 명의 젊은이들이 목회사역자로 결신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처럼 '직접 후원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탈퇴하여 독립교회가 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결집하는데 기여하였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이 직접 후원 선교를 통해서 70개 이상의 나라에 1,2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고, 미국 전역에 수많은 가정선교, 선교단체들, 교육기관들을 후원하고 있다.

일곱째, 보수주의자들은 1927년에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북미 그리스도인 대회'(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NACC)를 개최하였고, 1945년에 '선교 봉사'(Mission Services), 1948년에 '전국 선교사 대회'(National Missionary Convention)를 개최하였다. 이들 조직들에는 독립교회들을 통제할만한 그 어떤 권한이나 결정권이 없으며, 대회형식으로 치러지는 총회모임에서는 그 어떤 결의안도 상정되거나 채택하지 않는다. 보수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국제대회'의 경향들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195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대회를 치르던 NACC를 자신들의 집결지로 삼았다. 독립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나와 36개의 성서대학을 세웠고, 5천5백여 개의 교회에 출석교인 1백2십만 명을 상회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로 성장하였다.

여덟째, 보수주의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계 교회 협의회'(전 '연방 교회 협의회')의 창립 회원교일 뿐 아니라, 선도적인 교단이 되었다. 1959-66년 '내부 일치 협의'(Consultations on Internal Unity), 1960년 '교단 재구성 위원회'(Commission on Brotherhood Restructure), 1962년 '교회 일치 협의'(Consultation on Church Unity/COCU)에 가입, 1963년 '학자들의 패널' 보고서 발간(Publication of the Panel of Scholars Reports) 등을 통해서 꾸준히 교단화를 추진하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1968년에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를 위한 가(假)계획"(Provisional Design)을 채택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과는 별도로 개 교회들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교단이 되었다. 따라서 UCMS의 책임들은 1973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해외 사역 분과'(DOM)와 '국내 사역 분과'(DHM)로 재편되었고, 1981년에 "일반 정책과 원리들"(GPP)이 DOM의 재단에 의해 승인되었다. 1982년에 WCC산하 '신앙과 직제 위원회'가 만든 교회일치문서인 「세례, 성찬, 사역」(BEM)을 그대로 수용하여 유아세례자나 약식세례자들에게 재침례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96년 이후부터는 DOM과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United Church of Christ)의 '세계 사역 연합교회 이사회'(UCBWM)를 결합한 공동 글로벌 사역국(Common Global Ministries Board, CGMB)을 통하여 유아세례 전통을 고수하는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와 많은 일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주류 회중들은 여전히 침수 세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미침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교회의 완전한 회원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3.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파생된 그룹

첫째,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도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운동이 일어났다. 필자는 1980년대 전반기에 성령운동을 하는 펠로십 그리스도인의 교회(Fellowship Christian Churches)에 몇 차례 출석한 적이 있었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 달리 손을 높이 들고 통성기도를 하였고, 예배당 여러 곳에 상이 놓여있었으며, 그곳에 떡과 포도주가 담긴 잔이 한 개씩 놓여 있었다. 전체 교인이 한 컵을 쓴 것은 아니지만, 7-8명 정도가 한 컵으로 포도주를 돌려 마시는 주의 만찬을 시행하였던 것이다. 성도들은 상 주변에 둘러앉아 각자 기도한 후에 참여하였다. 이들 교회들이 1988년에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조직된 '그리스도의 교회 친교회'(Christ's Church Fellowship, CCF)의 창립교회들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CCF의 창립 멤버 대부분이 스톤-캠벨운동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링컨기독교대학, 밀리건대학, 산호세기독교대학(San Jose Christian)의 일부 학생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본부는 신시내티에 있으며, 링컨기독교대학원(LCS)을 졸업한 톰 스미스(Tom Smith)가 이끌었다. CCF는 치유와 다른 은사들을 강조하며, 「보혜사」(Paraclete)라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다.

둘째, CCF는 결신자들에게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간주하지는 않았지만, 침례를 시행하고 매주일 주의 만찬을 행하는 등 스톤-캠벨운동의 관행들과 신념들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론적인 은사와 권위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을 소위 성령의 제3의 물결에 속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CCF는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 기록된 사도, 예언자, 전도자, 장로(목사), 교사의 다섯 가지 직분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원래대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단의 행정은 모든 지 교회 대표들이 반년마다 모이는 장로 대회(General Presbytery)에서 선출된 지도부(leadership presbytery)에 의해 주도된다. 이 지도부는 사도들, 장로(목사)들, 예언자들, 장로들로 구성된다. 이 교단의 조직 체계에서는 사도가 특정 지역에서 회중들을 감독하는 영적인 지

도자로 인정받고 있다. 행정적으로, 지도부는 회장을 선출하게끔 되어 있고, 선출된 회장은 교단 전체의 행정과 연락 사무를 총괄한다. 미국과 해외에 CCF 교회가 약 100여개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오는 말

스톤-캠벨운동은 꾸준한 분열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종교집단이 되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스톤-캠벨운동은 20세기가 되는 1900년에 미국의 인구증가율의 두 배나 더 빠르게 성장하여 한 해 동안 무려 1천 개 교회를 늘린 경험을 갖고 있다. 분열이 없었다면, 50년 후인 20세기 중반까지 이 운동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미국에서의 교인수가 4천에서 6천만 명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20세기 초반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분열, 20세기 초중반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독립파인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분열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조직은 뭉쳤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뭉치면서 발전한다. 흥망성쇠에서 흥성(興盛)은 뭉칠 때이고, 망쇠(亡衰)는 흩어질 때이다. 그렇다고 조직의 분열이 반드시 망쇠의 길인 것은 아니다. 필요한 분열은 분가(分家)와 같아서 흥성으로 이어지는 성장통에 해당된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분열이지만, 좋은 분열은 자식이 분가하는 것과 같아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다. 따라서 스톤-캠벨운동의 세 주류들은 분가와 같은 좋은 분열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연합에 힘써왔다. 1930년에 출범한 '그리스도의 교회들 세계대회'(The World Convention of Churches of Christ)와 1999년에 시작된 '스톤-캠벨 대화'(Stone-Campbell dialogue)가 대표적이다.

이 연합 모임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세 지류가 일치룰 이루는 데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연합하여 스톤-캠벨의 유산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하며 격려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비방

을 멈추고 이해와 협력으로 일관해야 한다. 1999년에 출범한 스톤-캠벨 대화(Stone-Campbell Dialogue)에서 모임의 성격을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스톤-캠벨 운동의 세 지류 간에 신뢰와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세 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형제애를 키우려는 것이다. 한국교회들도 이런 공식적인 모임을 갖는다면 상호 신뢰와 관계 발전에 도움이 클 것이다.

참고서적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Edited by Douglas A. Foster, Paul M. Blowers, Anthony L. Dunnivant, & D. Newell Williams. Grand Rapids, Michigan/ Cambridge, U.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Bream, Harvey C. “The Church in the Bible and in History, Restoring New Testament Church.” 이 자료는 신시내티 크리스천 대학교 및 신학대학원의 총장을 역임했던 하비 C. 브림 2세(Harvey C. Bream, Jr.)가 1989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 위치한 사우스이스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행한 환원운동사 강연 내용. 음성파일과 녹취록은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http://kcc.info>)에서 듣고 읽을 수 있음.

Ⅲ.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태동의 신학 사상적 배경

발제자: 조동호 목사

들어가는 말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태동의 신학 사상적 배경’은 환원운동 1세대가 펼쳤던 두 가지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하나의 교회’ 운동이다. 이 운동은 아직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이 있기 이전에 시작된 운동이다. 이 운동의 신학 사상적 배경은 장로교 목사 발톤 스톤이 주축이 돼서 1804년 6월 28일 발표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¹⁾와 역시 장로교 목사 토마스 캠벨이 주축이 돼서 1809년 9월 7일 발표한 『선언과 제언』²⁾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게 된 배경이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믿고 행하는 전통도 이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운동의 신학 사상적 배경은 1811년 5월 4일 ‘브러시 런(Brush Run) 교회’³⁾를 처음 시작한 알렉산더 캠벨의 신학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1. ‘하나의 교회’ 운동

‘하나의 교회’ 운동이나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이 그리스도의 교회만의 독특한 운동은 아니다. 이들 운동들은 초대

1) 조동호, “2.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문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서진출판사, 1994), 39-51쪽.

2) 조동호, “3. 선언과 제언,” *Ibid.*, 53-92쪽.

3) 브러시 런 교회는 알렉산더 캠벨의 저택과 베다니 대학에서 그리 멀지 아닌 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 미들톤(West Middleton) 남동쪽 2마일 가량에 위치한 장소에 세워졌으나 지금은 그 터만 보존되어 있다. 캠벨의 저택은 옛 모습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으며, 캠벨이 세운 베다니 대학도 인문대학으로써 잘 운영되어지고 있다.

교회 때부터 있어왔던 운동들이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때로부터 역사는 분열되기 시작하였고, 그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은 언제나 있어왔다.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주제요, 선교의 과제⁴⁾이다. 그러나 ‘하나의 교회’ 운동이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가들인 마르틴 루터, 쾰링거, 요한 칼뱅 또는 마르틴 부처와 같은 이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친 이후부터였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운동이 일치보다는 성경의 권위와 진리를 더 중요시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또 종교개혁 자체가 교회를 찢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회의 모습은 교리적 아집과 교파주의에 치우친 분열과 분쟁의 연속이었다.⁵⁾ 종교개혁의 이런 부정적인 면을 시정하고 고쳐 나가는 ‘하나의 교회’ 운동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들이 바로 발톤 스톤과 토마스 캠벨이다.

이 운동의 신학 사상적 배경은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와 『선언과 제언』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지면관계상 간략하게만 소개하고자 한다.

스프링필드 장로회는 발톤 스톤(Barton W. Stone)이 시무 하던 교회를 포함해서 미국 오하이오주와 켄터키주 접경지역에 퍼져 있던 15개의 교회들로 구성되고 있었다. 이들 교회들은 모두 체험 중심의 부흥운동을 전개했던 교회들이다. 그들은 냉랭하고 인위적이며 율법주의적인 당시의 장로교조직으로부터 탈퇴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믿고 성경에 충실하며 민주주의적인 교회로 연합하기 위해서 따로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로회 조직

4) 사도행전과 바울서신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울의 선교과제 중의 하나는 그가 세운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예루살렘교회를 구성하는 유대인들과 합일을 이루는 일이었다.

5) 문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93년 10월말 우리 나라 전체 교단(총회)수는 1백59개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1백 개 교회이하로 총회가 구성된 교단이 전체 교단의 33%를 차지하는 52개 교단에 이르고 있다. 또 최근 발표에 의하면, 개신교 교단수가 전 세계적으로 600여 개에 달하고 있어 그 분열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9개월만에 해체를 선언하였고, 그 해체 성명서가 바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⁶⁾이다.

이 유언서의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교회 연합의 당위성, 둘째는 성경의 권위회복, 셋째는 개교회의 자치권, 그리고 넷째는 홀로 주(主)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자유이다.

이 유언서 첫 조항은 말하기를, “본 장로회는 죽고, 해체되어, 넓은 범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기 위하여 침몰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오직 한 몸, 한 성령만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기 때문이다”고 하였고, 이어지는 조항들에서는 “한 주님만이 계시므로 목사에 대한 높임 칭호인 ‘Reverend’를 쓰지 않겠다”고 하였고, “사람들은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채택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치리 할 법령이나 위임된 권위로 그들을 처벌할 권한을 영원히 멈춘다”고 하였다. 다른 조항에서는 말하기를, “복음사역을 위한 후보자들은 지금으로부터 열심 있는 기도로 성경을 연구하며,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으로서 단순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이 유언서는 목회자의 선택이나 책임은 물론 교회행정과 치리에 있어서 회중적이고 개교회 중심적일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성경 한 권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인도자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피차 관용의 정신을 키우고, 기도에 힘쓰며, 분쟁을 줄이고, 시대의 징조를 살펴 구속의 날을 고대할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Barton W. Stone,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1804),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1983.

먼저(imprimis), 우리는 이 장로회가 죽어 해체되어 큰 범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기를 유언한다(will). 오직 한 몸과 한 성령이 있을 뿐이며, 우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조항(item). 우리는 구별을 위한 명칭 레버렌드(Reverend)⁷⁾란 호칭이 잊혀질 것과 하나님의 유산(God's heritage)에는 오직 한 주(Lord) 뿐이며, 그의 이름은 하나(One)일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교회 치리를 위한 법을 만들고, 대표로 위임된 권위에 의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권한은 영원히 멈출 것과 사람들은 성경을 자유롭게 연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채택할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복음사역을 위한 후보자들은 지금부터는 뜨거운 기도로 성경을 연구할 것과 철학의 혼합이나 헛된 속임수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교문을 버리고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얻어 단순한 복음을 설교할 것을 유언한다(will).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무나 스스로 이 존귀를 취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돌리도록 해야 한다.

조항(item). 그리스도의 교회는 내치(內治/internal government) 즉 교역을 원하는 후보자들이 믿음은 건전한지, 가르칠 만한 체험적 신앙과 진지함과 또 재능이 있는지를 알아 볼 본래의 권리를 회복할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들에게 권위가 있다는 증거로 인정하지 말 것을 유언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도록 추수하는 주님에게 청할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실상은 아닌 자들을 시험할 본래의 권리를 회복할 것을 유언한다.

조항(item). 개개의 교회는 한 몸으로서 같은 정신으로 활동하며, 개 교회의 설교자를 선택하며 자유의지로 드리는 헌금으로 사례하며 서명 요구나 승낙없이 -- 교인들을 받아 드리며 -- 위법을 제거하며, 그리고 지금부터는 일인 혹은 다수의 대표에게 교회의 치리권을 위임하지 않을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지금부터 사람들은 성경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안내자로 삼을 것과 성경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책들로 피해를 입는 많은 사람들만큼, 만약 그들이 선택한다면, 그 책들을 불 속에 던져 버릴 것을 유언한다(will). 한 책을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많은 책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 우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조항(item). 설교가들과 사람들은 상호 관용의 정신을 배양하며, 더

7). 역자주: Reverend는 목사에 대한 존칭임.

많이 기도하고, 논쟁을 피하며, 시대의 징조를 보고 살피며, 구속이 가까웠음을 확고하게 기대할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임금 삼으려 했으며, 그것이 현재 되어진 상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형제들은 만세 반석에게로 가야 할 것과 장래를 위해 예수를 따를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켄터키주 노회(Synod of Kentucky)는 신앙고백서(Confession of Faith)⁸⁾에서 떠났을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교인을 조사할 것과 의심되는 그와 같은 모든 이단자를 즉각 정직(停職/suspend)시켜 억압된 자들이 자유롭게 행하며, 복음의 자유를 향유하도록 할 것을 유언한다(will).

조항(item). 최근 렉싱턴(Lexington)에서 발행된 두 문서의 저자인 모 씨(Ja--- ---)는 당파주의를 없애고자 하는 그의 열성 때문에 격려를 받기를 유언한다(will). 또한 우리의 과거의 행동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판단 받아야 하며, 일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유언한다.

조항(item).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자매 교단들은 그들이 성경을 조심스럽게 읽으며, 그들이 성경 안에 결정된 그들의 운명을 보게 되며, 너무 늦기 전에 죽음을 준비할 것을 유언한다(will).

‘하나의 교회’ 운동은 또한 1809년 9월 7일 발표된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에서 비롯되었다. 『선언과 제언』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군에 조직된 ‘그리스도인 협의회’의 총무였던 토마스 캠벨(1763-1854)이 초안하여 재정부장이었던 토마스 아체슨과 공동명의로 발표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현장이다. 이는 ‘선언,’ ‘제언,’ ‘부록’ 그리고 ‘후기’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 56쪽의 소책자이다.

북 아일랜드 출신의 토마스 캠벨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장로교회들의 분열현상을 몸으로 체험했었고, 미국으로 건너와서도 북 아일랜드에서 경험했던 똑같은 분열의 아픔을 체험하였다. 이런 일련의 경험들이 캠벨로 하여금 교회일치 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던 것이다.

『선언과 제언』에서 강조된 내용은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

8). 역자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말한다.

언서」와 마찬가지로 첫째, 성경의 권위회복, 둘째,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셋째, 교회의 자치권, 그리고 넷째, 신앙양심의 자유이다. '선언'에서는 '그리스도인 협의회'의 아홉 가지 결의 내용을 적었고, '제언'에서는 분열의 무서운 결과들을 지적하면서 분열을 멈추고 연합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서 연합을 향한 13개조의 명제를 발표하였다. '부록'에서는 '제언'에서 주장한 특정 부분을 확대 설명하였으며, 가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후기'에서는 전도단 발기를 위해서 취해야 할 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제언'에 나타난 13개조의 명제(Thirteen Propositions)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핵심헌장이다. 성경을 헌법으로 하는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 강조된 '제언'에서는 13개 명제가 제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나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성경대로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복종하며, 그들의 기질과 행동에서만큼은 같은 것을 표명하는 전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구성한다. 다른 누구도 참으로 적절하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 질 수 없다.

2.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각별하고 구별된 서로 다른 지역 사회에 떨어져 위치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어떠한 분열이나 무자비한 분쟁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영접하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 영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같은 법칙으로 보조를 맞추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하게 연합되어야 한다.

3.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아무 것도 믿음의 조항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교제의 시금석으로서 그것들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것만을 요구해야 한다. 교회 헌법이나 관리규정에 있어서 아무 것도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의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성경교회의 사도들의 권위에 의해서 분명히 명령된 것 즉 명백한 용어나 승인된 전례(前例)만을 인정해야 한다.

4. 신약성경의 말씀이 불가 분리하게 관련되어 있고, 교회의 덕과 구원을 위해서 둘이 하나님의 뜻이 담지 된 완전하고 통진적인 단 하나의 계시를 만들고 있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분리될 수 없지만, 직접

적이고 적절하게 그들의 즉각적인 목적에 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이 신약성경교회의 예배와 징계와 치리를 정한 완전한 헌법이며, 교회 구성원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완전한 규율인 것은 마치 구약성경이 구약성경교회의 예배와 징계와 치리를 정한 것과 같으며, 구약성도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것과 같다.

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예전을 실행함에 있어서, 성경이 분명한 실행의 시간과 방법에 관해서 침묵하는 곳에는, 그와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인위적인 권위도 가정되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 법규를 제정하여 간섭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사례들에서 더 이상 아무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될 수 없다. 다만 그들은 그들 제도의 언포(言布)되고 분명한 목적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이들 명령과 예전을 지킨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인위적인 권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새로운 명령과 예전을 교회에 부과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신약성경이외에 어떠한 것도 믿음 혹은 교회의 예배에 유입되어서도 안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6. 성경적 전제(前提)로부터 공정하게 추론된 신학적인 해석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교리로 참으로 인정될지라도, 그것들이 맥락을 파악하고 그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데 사용될 뿐이지,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엮어매는 일에 사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교리적인 믿음은 인간의 지혜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진실성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어떠한 해석도 교제의 시금석이 될 수 없고, 다만 교회의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신앙심의 함양에 진정으로 필요할 뿐이다.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추론된 어떠한 해석이나 진리도 교회의 신앙고백의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7. 하나님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크게 체계화시켜 보편적인 오류를 막고 변증하는 것이 크게 필요하고, 그런 목적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더욱 충분하고 명확할수록 더욱 좋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대부분이 인간의 논리적 사고의 결과임이 틀림없고, 또한 많은 추론적인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에 반대되는 것 즉 아무도 교회의 교제에 권한을 갖지 아니하고, 매우 분명하고 결정적인 판단을 소유하거나 매우 높은 수준의 교리적인 지식에 도달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한, 그리고 교회는 부형들은 물론이고 유년과 청소년들로 처음부터 구성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8. 사람들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에 대해서 독특한 지식이나 특출한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그들의 지식보다 더욱 강도 높은 신앙을 고백하

도록 요구되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이 본성과 행실로 상실되었고 죽어 가고 있다는 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과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에서 믿음과 순종의 신앙고백이 동반될 수 있는 정도의 성경적 자기 지식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입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다.

9. 은혜로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기질과 행실로서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 서로 인정해야 하며, 형제로서, 같은 가족과 성부의 자녀들로서, 같은 성령의 성전들로서, 같은 몸의 구성원들로서, 같은 은혜의 실체들로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의 같은 피값에 구입되었고, 같은 기업의 공동 상속인들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한다.⁹⁾

10. 기독교인들 사이에 분열은 많은 악들로 가득한 무서운 죄악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보이는 일치를 파괴하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이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나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추방시키고 파문시킨다. 분열은 주의 절대 권위로 엄금하고 있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다. 그것은 주의 분명한 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다. 분열은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경멸하며, 미워하며, 반대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비자연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로서 서로 사랑해야 할 가장 높고 가장 사랑스런 의무로 결합되어 있다. 한마디로, 분열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 낸다.

11. (어떤 경우들에서는)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적인 태만과 (다른 경우들에서는) 인위적인 견해들과 인위적인 창안들의 승인을 교제의 시급적으로 삼고, 그것들을 교회의 헌법, 믿음, 혹은 예배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거짓 권위는 즉각적이고, 분명하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사례들, 즉 일찍이 하나님의 교회에 발생된 모든 부패와 분열의 사례들이며, 사례들이었다.

12. 지상의 교회가 가장 완전하고 순수한 상태로 회복되는 길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첫째, 상기한바와 같이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성경적 자기 지식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입교인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둘째, 그들의 기질과 행실로서 그들이 고백한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교인으로 남을 수 없다. 셋째, 성경적으로 마땅한 자격을 갖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계시되고 명령된 믿음과 성결에 대한 조항들 이외는 아무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정에 있어서, 목회자들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대로,

9). 역자주: 마태복음 19장 6절.

초대교회의 전례(前例)대로, 인위적인 견해와 사람의 창안과 같은 어떠한 것으로도 더하지 아니한 채, 모든 하나님의 예전들을 정확하게 지킨다.

13. 마지막으로, 만일에 하나님의 예전들을 준수하는데 필수적인 정황적인 요소들이 계시의 말씀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목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한해서, 반드시 그러한 것들에 한해서만 인위적인 방편이란 이름아래서 더욱 성경적이란 주장 없이 채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에 따른 준행 여부나 계속되는 변경 또는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나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2.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태동의 신학 사상적 배경의 또 다른 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게 된 배경이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믿고 행하는 전통도 이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운동의 신학 사상적 배경은 1811년 5월 4일 '브러시 런(Brush Run) 교회'를 처음 시작한 알렉산더 캠벨의 신학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토마스 캠벨과 발톤 스톤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울 의사가 없었다. 1804년 6월 28일 발톤 스톤은 스프링필드 장로회를 해산하면서까지 연합운동에 기치를 들었고,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만 남기를 원하였다. 알렉산더 캠벨도 만일 장로교회나 침례교회가 성경해석상 그와 뜻을 같이했거나,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을 장로교인이나 침례교인으로 남았을 것이다. 토마스 캠벨이 장로교회를 떠나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1809년 8월 17일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워싱턴군에 그리스도인 협의회를 세운 점이나 1811년 5월 4일 브러시 런(Brush Run) 교회¹⁰⁾가

10) 교회체제로써 처음 시작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1811년 5월 4일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프레전트(Mount Pleasant)에 가까운 회관에서 이루어졌다. 이 때 토마스 캠벨이 장로로, 그의 아들 알렉산더 캠벨이 설교가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사상 첫 그리스도의 교회의 예배는 그 다음날인 5월 5일 주일날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곧 이어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 미들톤(West Middleton) 남동쪽 2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 교회당을 건립하고, 이름을 '브러시 런'(Brush Run)이라 하였으며, 1811년 6월 19일

처음 세워진 날 매우 가슴 아파한 사실을 보아 알 수 있다. 토마스 캠벨은 브러시 런 교회의 설립으로 인해서 자신의 연합운동의 꿈이 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브러시 런 교회가 설립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에는 그리스도인 협의회가 독립교회로서의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압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점에 관해서 알렉산더 캠벨은 말하기를, “우리는 과당을 지어 머리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고 언제나 비난을 받아 왔다. 또 한편 우리는 진실로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기반을 잡아야 한다는 압력을 언제나 받아 왔다”¹¹⁾고 하였다. 그리고 브러시 런 교회의 출범과 함께 알렉산더 캠벨의 당파적¹²⁾ 특성도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환원운동은 교회분열을 뼈아프게 체험한 초대운동가들이 교파교단 속에서 교회연합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성경의 권위회복을 부르짖다가 교리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교파교단을 떠나게 되었고, 자체교회를 세워 성장을 거듭하면서부터는 교리적 진실성 때문에 누가 과연 참 그리스도인인가라는 논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매주 성만찬과 침례가 바로 이런 질문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매주 성만찬의 전통은 그리스도인 협의회가 독립교회로 처음 모인 1811년 5월 5일의 예배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지속되었는데, 첫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은 매주 성만찬의 시행이 신약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의 전통이라고 믿었기

새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11). Alexander Campbell, *The Lunenburg Letter with Attendant Comments*(Nashville: The Disciples of Christ Historical Society, 1955); Bruce R. Parmenter, "What Is the Restoration Movement-A Fellowship or a Church?" *The Christian Standard*(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August 18, 1985), pp. 740-741; Alexander Campbell, "Any Christian Among Protestant Parties" And "The Lunenburg Letter," *Millennial Harbinger*(1837), reprinted by Lincoln Christian College Press, Lincoln, Illinois in March 1970, p. 11.

12) 대부분의 교파운동들은 초기 단계에서 강한 당파적 성격을 띄곤 했다. 그 이유는 강한 연대의식과 선민의식 그리고 희생정신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당파성을 드러내놓고 강조했던 운동의 한 예가 민중신학과 민주화운동이다.

때문이다.

2개월 후, 브러시 런 교회는 세 사람¹³⁾의 결신자를 얻게 되었는데, 이 때 공식적으로 침례의 방법문제가 대두되었다. 토의 결과 교회는 『선언과 제언』의 원칙(명제3,5,12)에 따라 침수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한 줌의 흙으로 시신을 매장할 수 없는 것처럼 몇 방울의 물 뿌림으로 죄인이 장사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로 1811년 7월 4일 버팔로 냇가(Buffalo Creek) 깊은 물에서 최초로 침수세례를 거행하였다. 그러나 침례자였던 토마스 캠벨은 미침수자였기 때문에 첫 침례는 정통성의 시비가 일어났다. 그 후 알렉산더 캠벨은 자신의 첫아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헬라이어 성경을 놓고 기도하며 깊은 연구에 몰입하였고, 유아세례가 성경적이지 아닌 인위적인 전통에 의한 것임을 확신하였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1812년 6월 12일 침례교 목사 마티아스 루스(Mattias Luce)에게 재침례를 받았다.

그후 알렉산더 캠벨은 침례의 중요성을 깨닫고 1823년부터 1830년까지 10년간 『기독교 침례인』(Christian Baptist)지를 출간하였으며, 이 잡지에서 논한 침례에 관한 글들을 모아 『기독교 침례』(Christian Baptism with Antecedent and Consequents)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그는 침례에 관한 주제로 여러 번의 공개토론을 벌였으며, 그 기록들을 모아 여러 권의 책으로 출간하였다. 그는 또 『기독교 침례인』에 이어서 『천년왕국 예고자』(Millennial Harbinger)를 출간하였고, 이 잡지에서도 30년 이상 침례에 관한 글을 쓰고 또 주장하였다.

나오는 말

간략하게나마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태동의 신학 사상적 배경

13). 결신자 세 사람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Margaret Fullerton, Abraham Altars, and Joseph Bryant.

을 환원운동 1세대가 펼쳤던 두 가지 운동, 즉 '하나의 교회' 운동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에서 찾아보았다. 첫째, '하나의 교회' 운동은 아직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이 있기 이전에 나온 발톤 스톤의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와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에서 찾아보았다. 둘째,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알렉산더 캠벨의 주도로 세워진 '브러시 런(Brush Run) 교회'의 설립과 설립 직후 곧바로 실천에 옮긴 성만찬과 침례에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신학 사상적 배경은 역시 성경의 가르침이었다.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에 나타난 명칭을 사용하였고,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의 믿음과 전통을 따랐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다.

IV.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의 당위성 On the Validity of the Korean Christian Church and Church of Christ Movement

글 조동호 목사

1. 이 운동의 뜻풀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자로 ‘기독교회’란 뜻으로써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Church of Christ)란 뜻이고, 둘째는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을 주체로 삼는 교회(Christian Church)란 뜻이다. 이렇게 교단명칭을 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전 세계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란 통일된 이름아래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전 세계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통일된 이름아래서 일체가 되는 모범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범을 바르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행동지침이 필요한데 그것이 신약성경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두 가지 운동을 펼친다. 첫째는 ‘그리스도인 운동’(Christian Movement)이요, 둘째는 ‘신약성경교회 운동’(New Testament Christianity Movement)이다. 우리는 이러한 운동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믿어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이라고 부른다. 200년전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미국과 캐나다에는 2만3천여 교회와 4백만 성도들이 있고,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한 켄터키주 루이빌 시에 있는 주일평균 2만 명 이상 최고 3만 명까지도 모이는 ‘사우스이스트 그리스도의 교회’(Southeast Christian Church)가 대표적인 교회이다. 우리나라에는 5백여 교회가 전국에 흩어져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서울에 그리스도대학교와 서울기독교대학교, 등촌 중학교, 대전에 한민대학교(구 한성 신학교),

부산에 동서대학교와 경남정보대학 등이 있다.

2. 이 운동의 시작과 발전

이 운동에 소속된 자로서 한국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은 일본주재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이다. 그는 1907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열린 선교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거쳐 간 것이 전부지만, 이후 한국 선교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최초의 인물이다.

1911년 일본인 성도가 요추야 선교부(Yotsuya Mission)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을 위해서 15엔 70전을 맡겼고, 커닝햄은 일본 거주 한국인을 한국에 보내서 이 돈을 쓰게 하였다. 1916년 동경주재 커닝햄 선교부가 한국 선교의 거점 확보를 위해서 힘썼고, 1923년에 일본 요코하마시 미야다쵸 조선인 교회(横浜市 宮田町 朝鮮人 教會)를 설립하였으며, 1924년 10월에 이 완건을 한국에 파송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구세군 사관 출신의 성낙소 목사가 1927년 1월 1일에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처가(妻家) 사랑방에 '기독교회'(基督之教會)를 자발적으로 세웠고, 기독교회 출신 일본 유학생의 소개로 커닝햄과 연결되어 1930년 5월에 미야다쵸 조선인 교회에 부임하였으며, 1931년 9월 하순에 귀국하여 1932년까지 일 년여 동안 커닝햄 선교부의 조선포교책임자로 일하였다. 이후로는 이인범이 조선포교책임자로 활동하였다.

1935년에는 최초로 미국인 제이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가 선교사로 입국하여 일 년 남짓 머물렀고, 1936년에는 커닝햄 선교부에서 일하던 존 채이스(John T. Chase) 선교사가 입국하여 4년간 머물면서 선교의 기반을 다졌으며, 1939년에는 힐 요한(John Hill) 선교사 부부가 입국하여 채이스 선교사의 뒤를 이어 1971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다른 한편 하와이 사탕수수밭 노동자이자, 후에 독립 운동에 참여했던 동석기(무악기)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와 게레트

신학교를 졸업한 후 감리교 목사로 귀국하여 활동하다가 재차 도미하여 1929년 신시내티 기독교대학교를 졸업한 후 1930년에 귀국하여 그해 11월부터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역시 감리교 출신이자, 일본 관서학원 신학부와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한 강명석(무악기)이 1936년 귀국하여 합세하였고, 연희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이며, 한 때 『신학세계』의 편집을 맡아보았던 최상현 목사가 채이스 선교사의 동역자로 가세하였다.

50년대 이후에는 감신대학교와 밴더빌트 대학교 신학부를 마친 이신 박사가 합세하여 활동하였으나 왜정말기의 어려운 정세와 6.25사변으로 선교사들이 철수하는 등 발전하지 못하다가 50년대에는 장로교 목사였던 김은석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지방의 교역자들이 합세하여 남부지방에 큰 부흥의 역사를 자생적으로 이뤘으며,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힐 요한(John Hill), 해롤드 테일러(Harold Taylor), 최수열(L. Haskell Chesshir, 무악기), 말콤 파수리(Malcolm E. Parsley, 무악기), 배도은(Gorden Patten), 미국에서 공부한 최윤권 목사, 이신 목사, 장성만(전 국회부의장) 목사 그리고 70년대에는 역시 미국에서 공부한 김찬영 목사 등이 가세하여 대학들을 세우고 목회자들을 배출함으로써 비로소 발전의 기회를 타게 되었다. 70년대에는 또한 수많은 유능한 목회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우기도 하였다.

3. 타 교단에서의 이 운동의 흔적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이 상기한 인물들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은 결코 아니다. 이밖에도 여기에 열거하지 못한 수많은 인물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서, 곧 한국의 타 교단에서 이 운동이 한국인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이미 이 운동에 눈을 뜬 소수의 선각자들이 있었다.

국내에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란 이름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1889년 7월에 입국한 말콤 펜윅(Malcolm C. Fenwick)이었

다. 펜워는 침례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자신은 교파의식을 떠나서 사역하였으며 그가 관계한 교회들은 ‘대한기독교회’로 알려져 있었다. 다음은 펜워이 쓴 자서전(The Church of Christi in Corea)의 일부 내용이다.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교단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셔서 사역을 맡기셨고, 이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자 감독자들을 임명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간결한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한국어로는 ‘대한기독교회’(Dai Han Kitock Kyouhay)였으며, 그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The Church of Christi in Corea)란 의미였습니다(허진, 『대한기독교회사: 펜워 선교사의 자서전적 이야기』).

1891년 마켓에게 세례를 받고 장로교회 목사로 시무했던 한석진은 ‘교파주의’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자생적 환원운동가였다. 한석진 목사는 기회만 있으면 교파구별이 없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는 1909년 일본 도쿄에 유학생들의 한인 교회를 설립할 때에 초교파적인 연합교회로 세울 것을 주장하였고,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는 학생들과 본국교회를 설득하여 “일본에서만큼은 장로교나 감리교가 아닌 연합교회로 운영한다.”는 원칙을 만들어냈고, 1915년에는, 물론 부결됐지만, 자신이 속한 경기총청노회에 ‘조선예수교장로회’란 교단 명칭을 “조선기독교회로 바꿀 것”을 헌의하였으며, 1930년 금강산에 세워진 2층짜리 돌집 수양관의 이름을 ‘장로교 수양관’이 아닌 ‘기독교 수양관’으로 불러야 한다고 고집하여 관철시켰다(이덕주, “한국교회의 자존심, 한석진 목사”).

10대 후반 수원농림학교 재학시절 기숙사에서 처음 기독교 신앙을 접한 최태용은 어느 날 침상에 누우려 할 때에 홀연히 광명한 빛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네 몸을 바치라”는 가슴에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되고, 20대에 “그리스도는 생명이다!”는 목시를 얻게 되었다. 27살에 박동완, 전영택, 송창근, 강명석, 최상현, 채필근 등이 동인지처럼 떠나

던 『신생명』(新生命)에 글을 발표하다가 28살에는 스스로 『천래지성』(天來之聲)을 펴냈다. <저자 주: 강명석(관서학원과 벤더빌트대학 졸업)과 최상현(연희전문과 협성신학 졸업, 『신학세계』 편집)은 본래 감리교 목회자들이었으나 1930년 중반부터는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에 공헌함.> 그는 이 신앙지에서 “사람은 다만 그리스찬이란 일흠 외에 무삼 짝 일흠으로써 신자를 부르기 심허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리스찬 이외의 일흠으로써 여배(余輩)를 부르랴거든 여배(余輩) 또한 한 일흠을 제공하리라.... 여배(余輩)는 교회주의라는 것이 비진리오 악마의 오묘(奧妙)임을 주창한다.”(“비교회주의자”, 『天來之聲』) 17호, 1926. 10)고 하여 ‘오직 그리스도인!’(Christian Only!)을 주창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의 한국인 선구자가 되었다. 36살이던 1933년 9월 어느 날에는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물살이 센 큰 강을 건너는 꿈을 꾸고서 “소(小)하고 순(純)한 교회”를 세우라는 하늘의 계시로 받아들여 1935년 12월 22일 ‘기독교 조선 복음교회’를 창설하였다. 이 때 그가 제창한 표어가 “1)신앙은 복음적이고 생명적이어라. 2)신학은 충분히 학문적이어라. 3)교회는 조선인 자신의 교회여라.”(“우리의 표어”, 『영과 진리』 81호, 1935. 12)였다.

성낙소(成樂紹) 목사는 1890년 5월 16일에 태어나 1964년 11월 30일 74세로 소천 하였다. 그는 일찍이 구국의 일념으로 홍주성 의병군에 가담하여 왜적을 물리치려 하였으나 기회를 놓치자, 구세군에 가입하여 이를 실현하려 하였으며,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때에는 영동지방의 유지와 청년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왜경에게 쫓겨 다녔던 애국지사였다. 이 시기에 처가가 있던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2구 290번지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곳 사랑채에서 「기독지교회」(基督之教會)를 시작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낙소 목사는 그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27년 정월 초에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에서 성낙소 자신이 기

독교계를 시찰한바 기독교 각파가 기독교 정신의 골자인 박애(博愛)로 속죄구령의 목적을 충각(忠覺)하고 각기 자파(自派)의 교세만 확장하려는 동시에 자파가 아닌 교회는 이단시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이 농후함으로 상대하는 입장에 소원(疏遠)함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성서 중 에베소서 4장 3~6절 말씀과 같이 칠종(七種)을 통일하자는 신앙으로, 첫째 몸도 하나요 하였으니, 몸은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킴이라(엡 1:23; 골 1:24). 교회의 명칭을 기독교의 교회라고 통일하기 위하여 기독교의 복음으로 동민에게 전하였다(성낙소, 『자서전』 제2장).

4.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의 당위성

서두에서 밝혔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두 가지 운동을 펼친다. 첫째는 ‘그리스도인 운동’(Christian Movement)이요, 둘째는 ‘신약성경교회 운동’(New Testament Christianity Movement)이다.

‘그리스도인의 운동’은 교회가 ‘하나 되자’는 운동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들의 이름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인’뿐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교회’인 것이다. 다른 모든 이름들을 버릴 때 지상의 주님의 교회들은 한 이름 아래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신약성경교회 운동’은 진리 운동이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표어의 올바른 표현이다. ‘성서로 돌아가자’는 표어에는 수많은 교회들을 이단에 빠지게 하는 함정이 있고, 실제로 이단교회들이 즐겨 쓰는 표어가 ‘성서로 돌아가자’ 또는 ‘성서가 표준이다’와 같은 표어들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이미 200년 전부터 이 운동을 펼쳐왔지만, 침례와 성만찬과 마찬가지로 이 운동 역시 오늘날에는 타 교단의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이슈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구약성서에 대한 신약성서 저자들의 입장은 유대교의 입장과 명백하게 다르다. 유대교에서는 구약성서의 말씀들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모든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

라,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구약성서를 모형론 또는 유형론(Typology)으로 이해했고, 영적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을 일컬어 구약성서에 대한 '구속사적 성서이해'라고 말한다. 이런 해석의 차이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결코 같을 수 없는 아주 다른 종교인 것이다. 그래서 구약성서의 해석을 유대교 랍비들과 달리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운동인 것이다. 이점을 16세기의 종교 개혁가들이 바르게 지적하지 못한 채 '성서로 돌아가자'고 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찢어졌고, 문제점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이나 분열의 아픔이 치유되지 못했고, 유전병처럼 후대에까지 대물림되어 왔던 것이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말관과 메시아관에서 나타난다. 기독교가 실현된 종말론(realized eschatology)을 믿고 있는 반면, 유대교는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론(futuristic eschatology)을 믿고 있다. 유대교에는 영적구원이 없고, 오직 육적구원만 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구원과 그의 재림 때에 육적 완성이 이뤄질 것을 말하는데, 유대교에서는 출애굽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大)구원이 이뤄졌고, 제2의 출애굽사건을 주도할 메시아(왕)가 오심으로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본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미 실현된 구원의 확신, 곧 재림(종말) 때에 주어질 축복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 영적 축복이 있는 반면, 유대교에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데, 유대교인은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미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유대교인들은 2500여 년 전부터 두 가지를 희망하고 있었다. 첫 번째가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 메시아가 가져올 '올람 하바'(Olam Ha-Ba)이다. '올람 하바'란 '메시아 시대' 혹은 '다가올 세계'(World to Come)를 뜻한다. 이 '올람 하바' 곧 '다가올 메시아 세계'는 흔히 말하는 '종말시대' 또는 '마

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이 '다가올 마지막 세계'가 2천 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인류의 대속을 위한 것이었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대신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의 활동은 다가올 마지막 세계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올람 하바'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성령님의 '중생과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올람 하바'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500여 년간 몹시 고대하던 그 마지막 세계 혹은 종말시대가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라는 새 언약 공동체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영적으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시대를 교회시대, 혹은 성령시대라고 부른다. 또 이 시대를 다른 말로는 시작된 종말시대 또는 실현된 종말시대라고 부른다.

시작된 종말이나 실현된 종말이란 말은 영적인 종말을 뜻하는 것이고, 종말의 완성을 뜻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말, 혹은 '칭의'나 '중생'이란 말은 종말이 완성되는 때에 주어질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고, 성령님으로 보증 받고, 인침 받고, 그 축복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변호하심과 치료하심 속에서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대표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평강이다.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이 평화가 있는 곳에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끝' 곧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뤄진다.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유대인들에게는 없다. 그들에게는 시작된 종말이나 실현된 종말의 축복이 없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

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뿐이고, 성령님으로 보증 받고, 인침 받고, 그 축복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보호하심과 변호하심과 치료하심 속에서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는 것이 없다. 유대인들에게 시작된 종말의 축복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다가올 시대'란 그들 민족만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올람 하바'는 유대인의 제2의 출애굽 사건, 곧 유대인의 대 구원 사건을 말하는데, 이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 아니고, 육적인 사건이다. 문자적인 이스라엘 왕국의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되었는데, 건국된 지 60여년이 흘렀어도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하게 회복되었다고 믿는 유대인은 없다. 아직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세계를 통합할만한 여력도 없기 때문이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점은 메시아관(觀)에서도 나타난다.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세주'(救世主)도 아니고, 죄가 없으신 삼위일체 신도 아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게 해줄 다윗과 같은 영웅이자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이끌 모세와 같은 인물이라고 본다. 그 같은 인물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킴으로써 정치적 영적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스라엘에 한 정부를 세울 것이고, 그것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전 세계 정부의 중심에 세울 것이며, 성전을 재건할 것이고, 성전예배를 다시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종교법정 체계를 회복시킬 것이고, 나라 법으로써 유대법을 세울 것이라고 믿는다. 메시아에 대한 이런 큰 차이 때문에 오늘날의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메시아'란 말을 쓰지 않고, '모쉬아크'란 표현을 쓰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펼치는 '그리스도인 운동'과 '신약성경교회 운동'은 가장 시급하고 적절한 운동이자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

는 운동이다.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신앙이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내리 사랑으로 항상 먼저 인간을 찾으신다. 인간을 위해서 대안을 갖고 찾아오시고 손수 문제해결의 길을 마련하신다.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겠다는 판단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용으로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지시하신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신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신약성서의 지시대로 하는 교회가 참 교회이고, 그 대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이다. 인간이 좋아하는 방법과 인간의 생각에 좋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예배는 인간의 감각과 즐거움을 위한 예배이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따라 이 땅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많아질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이 운동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V.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

글 조동호 목사

교회를 국가조직에 비교해 볼 때, 교회의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헌법은 신약성서이다. 백성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존재 목적은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라 호칭한 것이고, 구성원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Christian Church' 혹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라 부른다. 또 헌법이 신약성서이기 때문에 '신약성서교회'라고 부른다. 교회에 관한 호칭은 이렇게 머리가 중심일 때, '그리스도의 교회,' 구성원이 중심일 때, '그리스도인의 교회,' 헌법이 중심일 때, '신약성서교회'라 부른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회복하자'(Restore the Church of the Christ, by the Christ, for the Christ).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에 의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를 회복하자'(Restore the Church of the Christian, by the Christian, for the Christian). '신약성서의, 신약성서에 의한, 신약성서를 위한 교회를 회복하자'(Restore the Church of the New Testament, by the New Testament, for the New Testament).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회복하자'(Restore the Church of the Gospel, by the Gospel, for the Gospel of Light and Life). 이 네 가지 가치 있는 회복운동을 펼쳐나가는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이 네 가지 회복운동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한다.

1,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를 회복하자는 운동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피 값으로 사신 공동체이다. 그리스도께서 눈에 안 보인다고해서 목사가 주인행세를 해도 안 되고, 장로와 집사가 주인행세를 해도 안 된다. 계시록이 분명하게 주는 교훈은 구원의 능력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다. 이 능력을 찬탈하고 모방하면서 자기를 높여 숭배케 하는 자를 계시록은 '짐승'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다. 또 이 짐승을 앞세우고 높이는 일에 앞장서는 우매한 자들을 일컬어 거짓선지자 또는 666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이다.

2. 그리스도인의 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에 의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를 회복하자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분열의 벽, 인종의 벽, 남녀의 벽, 신분의 벽, 계급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용광로에서 녹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분열을 획책하는 인종의 벽, 남녀의 벽, 신분의 벽, 계급의 벽은 허물어져야 한다. 그때 비로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대로, "궁핍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란 성막 지성소의 법궤 뚜껑을 일컫는 시은소를 두고 한 말이다. 히브리서 6장 19-20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휘장을 찢고 앞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성도의 희망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히브리서 10장 19-20절을 보면,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고 하였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을 지상 성막의

법궤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설명한 이유는 지상 성막이 하나님의 지시로 지어진 하늘 성막의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이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 막는 성막휘장은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인위적인 장벽을 상징한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것은 '휘장'이란 장벽이 허물어진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네 개의 뜰과 두 개의 성소가 다섯 개의 벽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크고 넓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이 벽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유대인 여성의 뜰,' 이 벽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유대인 남성의 뜰,' 이 벽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인 '제사장의 뜰' 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놓인 '성소,' 다시 휘장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법궤가 놓인 '지성소'가 있었다. 이 유대교 성전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인종의 벽'이 있었고, 유대인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에 '남녀의 벽'이 있었으며, 유대인 남성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신분의 벽'이 있었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사이에 '계급의 벽'이 있었다. 그런데 원래 벽은 하나님의 영역인 성막 안에만 존재했던 것이다. 뜰의 장벽들은 다 유대교가 만들어낸 인위적이고 권위적인 벽들이다. 이 모든 벽, 심지어 신성의 상징인 성막휘장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육신을 깨뜨리심으로 다 허물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민족, 남녀, 신분, 계급의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법궤 앞 시은소 앞으로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방인들인 우리조차도 아무런 거리낌이나 방해물 없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공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더 이상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신분이 있고, 계급이 있겠는가? 우리만이 유일한 그리

스도인은 아니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만이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상이기를 바란다면, 매우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3. 신약성서교회 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은 신약성서의, 신약성서에 의한, 신약성서를 위한 교회를 회복하자는 운동이다. 대우전자의 탱크주의 광고로 화제를 모았던 전 정보통신부 장관 배순훈 박사의 평소의 지론이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였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여러 선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신 목사님은 그림에 재능을 가진 미국 밴더빌트(Vanderbilt) 대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신데, 종이에 무언가를 끄적일 때면 언제나 '근본'이라는 글자를 적어놓고 그 다음 글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의 정신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던 것이다. 이 '기본' 또는 '근본'이 바로 교회가 서야할 기반이고, 그 기반이 바로 신약성서이다.

사람들은 새것, 특히 실용적인 것에 가치를 둔다. 그래서 인기 있는 것, 큰 것, 잘 되는 것, 세상에서 통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잘 되지 않는 것에는 뭔가 모를 잘못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세속적 가치일 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19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알렉산더 캠벨 목사님이 '옛 질서를 회복하자'(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는 운동을 펼쳤다. '옛 질서'란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말한다. 그들의 가르침을 전하는 책이 신약성서이다. 그러므로 신약성서의 가르침을 회복하자고 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신약성서교회로 돌아갈 것을 외치고 있다. 교회가 왜곡되고 잘못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믿음에 상관없이 구약성서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단들

이 구약성서와 연관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약성서 저자들은 모두가 구약성서의 해석자들이다. 그분들이 해석하고 이해한 방식을 떠나 제멋대로 구약성서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의 가르침이 될 수 없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아주 다른 종교이다. 그 이유는 구약성서에 대한 이해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유대교인들은 신약성서가 구약성서를 이해한 영적인 방식과 모험적인 해석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인들의 문자적인 구약성서이해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유대교를 인정할 수 없다. 바울은 유대교적 기독교를 분명한 어조로 '다른 복음'이라고 정죄하였다.

바울은 교회들에 보낸 서신들에서 '배운 것'과 '전한 것'이란 말을 여러 차례 썼다. 복음을 누구한테서 배웠는가와 누가 전하였는가가 그만큼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고 하였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3-25절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의 전례를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고 하였다. 이것은 주님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올바른 계보요, 전통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주께 받아서 사도들이 전한 것 이외의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하였다. 갈라디아서 1장 8-9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요한도, 사도의 가르침 이외의 것을 가르치는 자를 일컬어, 거짓선지자요, 적그리스도이라고 단정하였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행한 예배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이단이라고 하였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교회가 주님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올바른 복음, 즉 사도전통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약성경 27권은 주님께 받은 것을 사도들이 전한 올바른 복음이요, 전통이요, 계보란 것을 알 수 있다.

4. 빛과 생명의 복음회복 운동

그리스도의 교회운동은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회복하자는 운동이다. 크다고 참된 교회인가?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참된 교회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과 같은 개혁가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친 때에 이미 기독교는 1,50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었고, 지중해와 흑해 연안의 온 동·서방 세계가 천주교회와 동방정교회를 국교로 하는 거대한 교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시급히 요구됐던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열쇠가 교회의 크기나 역사의 길고 짧음에 있지 않고, 빛과 생명의 복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라고 말씀하셨다.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셨고, 8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다.”고 하셨으며,

13절에서는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유전’이란 말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세운 랍비들의 전통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세운 교회전통을 말한다. 예수님은 율법을 아는 지식과 행하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기대했고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기보다는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과 전통을 더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 분을 일컬어 ‘귀신들린 자’(요 7:20; 마 12:24)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요 7:24)고 하였고, 마태복음 7장 21-23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신약성서가 표준인 교회, 오직 그리스도인뿐인 교회, 빛과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이 땅에 충만해질 때까지 개혁운동을 쉬지 말아야 한다.

VI.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론

글 조동호 목사

‘탱크주의’란 광고 전략을 채택하여 선풍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자 대우전자 회장(91-97) 및 KAIST교수(72-74)를 역임한 배순훈 박사는 평소의 지론이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이었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평소의 지론은 무엇인가? ‘단순한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Simple New Testament)이다. 이는 잘못된 교회전통을 고치고, 기독교의 기본인 사도전통으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배순훈 박사는 KAIST에 ‘탱크강의실-기본으로 돌아가자’란 문구가 새겨진 현판을 걸었다고 한다. 우리도 ‘00 그리스도의 교회-신약성경으로 돌아가자’라 새긴 현판을 걸어보면 어떨까?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과 같은 뜻이다.

데모데후서 3장 14-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고 하였다.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말씀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네 가지이다. 첫째는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배워서 확신한 것을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그것을 누구한테 배웠는가를 알아야한다는 것이고, 넷째는 배워서 알고 확신한 근거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었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교회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고, 확신을 가져야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바울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디모데가 그 성경말씀을 뉘게서 배웠는가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것을 뉘게서 배웠는가를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누구한테서 배웠는가? 어느 목사에게서 배웠는가? 어느 신학자한테서 배웠는가? 어느 교단에서 배웠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들인가?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에서 “배운 것”이란 말과 “전한 것”이란 말을 여러 차례 쓰고 있다. 복음의 말씀을 누구한테서 배웠는가와 누가 전하였는가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 하였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3-25절에서 바울은 주의 만찬의 전례를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고 하였다.

이것은 주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올바른 계보요, 전통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주께 받아서 사도들이 전한 것 이외의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하였다.

갈라디아서 1장 8-9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

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 요한도, 사도의 가르침 이외의 것을 가르치는 자를 일컬어, 거짓선지자요, 적그리스도이라고 단정하였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행한 예배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이단이라고 하였다. 후대의 교회들이 신약성경 27권의 정경성 여부를 결정할 때에 기록으로 남은 문서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과 일치하는가를 보고 결정하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고 하셨다. 이 말씀은 교회가 주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올바른 복음, 즉 사도전통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성경 27권이 주께 받은 것을 사도들이 전한 올바른 복음의 말씀이요, 전통이요, 계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은 어떤가?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17절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성경’ 이란 단어는 십중팔구 구약성경을 두고 하신 말씀일 것이다.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신약성경이 27권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이것

이 사실이라면, 즉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을 염두에 두고 ‘성경’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면, 구약성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고; 둘째,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며; 셋째,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이 세 가지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구약성경이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조건은 그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에 구약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발견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에 구약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해석방법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해석방법이었고, 신약성경 저자들의 해석방법이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의 범위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1장 8-9절의 말씀을 이해야 한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구약성경에 대한 해석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를 “다른 복음”이라고 단호하게 배격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단이요,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평소의 지론이 무엇인가? ‘단순한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자’이다. 이는 잘못된 교회전통을 고치고, 기독교의 기본인 사도전통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주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올바른 복음, 즉 사도전통으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크다고 참된 교회일까? 오랜 역사를 가졌다고 참된 교회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마르틴 루터와 존 칼뱅과 같은 개혁가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친 때에 이미 기독교는 1,50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었고, 지중해와 흑해 연안의 온동·서방 세계가 천주교회와 동방정교회를 국교로 하는 거대한 교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시급히 요구됐던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열쇠가 교회의 크기나 역사의 길고 짧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우리에게 믿음생활이나 신학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겼다고 했을 때에 누구한테 물어야 하겠는가? 당연히 신약성경에 물어야 할 것이다. 신약성경은 주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올바른 복음, 즉 사도전통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예배를 ‘주의 날’ 인 주일에 드리는 것이 옳은가, 안식일인 토요일에 드리는 것이 옳은가? 누구한테 물어야겠는가? 당연히 신약성경에 물어야 한다. 신약성경은 주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올바른 복음, 즉 사도전통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에 모여 예배드렸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는가를 신약성경에 물어보면 올바른 해답이 나올 것이다. 신약성경의 해답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다. 그들은 그 날을 ‘주님의 날’ 즉 ‘주일’ 이라고 불렀다. 이런 맥락에서 안식일 교회는 잘못된 것이다. 안식일이 장차 올 ‘주일’ 의 모형이란 점을 믿지 않는 것은 사도들의 예배전통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바울이 저주한 ‘다른 복음’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도들의 전통에는 침례와 성만찬이 있다. 사도들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 하신 예수님의 부탁을 일

년에 몇 차례나 시행하였는가? 신약성경의 해답은 사도들이 매주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을 기념하였다 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고 했고, 20장 7절에서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고 말하고 있다. 또 교부들의 글이나 기독교 역사는 매주 성만찬이 사도들의 전통이었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물세례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약식세례를 받으셨는가? 침수세례를 받으셨는가? 유아세례는 성서적인가? 신약성경에서 침례는 누가 받았는가?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받았는가, 부모나 대부나 대모의 믿음으로 받았는가?

예수님은 침수세례를 받았다. 성경에는 유아세례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유아세례나 약식세례는 교회전통이지 사도들의 전통은 아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왜 사람들은 성경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가? 침례가 구원에 필수적이든 아니든, 매주일 거행하는 성만찬이 은혜롭든, 은혜롭지 못하든, 사람들은 왜 그런 이유들을 들어가며 주께 받아 전한 사도들의 전통을 외면하려 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성만찬을 자주 하면 너무 혼한 일이 된다고 말한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혼한 일이 아닌가? 매주일 하는 설교는 혼한 일이 아닌가? 매주일 하는 헌금은 혼한 일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론은 교리적인데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대로 하자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무엇이라고 책망하였는지 아는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7-13절에서 무엇이라고 책망하셨는

지 아는가? 7절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고 하였고, 8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다.” 고 하였고, 또 13절에서는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유전” 이란 말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세운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 세운 교회전통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시 율법을 아는 지식과 행하는 일에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기대했고,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들’ 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기보다는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과 전통을 더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그 분을 일컬어 ‘귀신들린 자’ (요 7:20; 마 12:24)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요 7:24)고 하였고, 마태복음 7장 21-23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교회전통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크다고 다 잘못된 것도 아니다. 역사가 오래다고 다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성경 대로가 아닌 전통이 있다면, 아무리 크고, 또한 그 전통의 역사

가 아무리 오래되었다하더라도 성도의 기본인 신약성경의 전통
에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 기본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성경교회이기를 원한다. 사도
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존중한다. 사도들의 예배전통을 따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여 놓으신 성경의 명칭만을 사용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만든 교리나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 신약성경의
명령들을 지킨다. 오직 성경만을 성도의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
로 삼는다. 오직 하나님이 제정하여 놓으신 규정만을 지키려고
한다. 그렇다고 우리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집하지 않는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도들의 전통대로 해석하며, 신
약성경이 명령하는 것을 지키고,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며, 성경
이 말하지 아니하는 일들은 사랑으로 성도들의 견해의 차이를
피차에 인정하려고 한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
에로 돌아가 그 순수성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Ⅶ. 그리스도의 교회의 표준

글 조동호 목사

만일 누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첫째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둘째 신약성경을 표준삼는 교회, 셋째 오직 그리스도인뿐인 교회, 넷째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느 목회자가 말하기를, “교회가 성장하려면, 먼저 교회론이 바로 정립돼 있어야 한다.” 고 했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신학과목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론은 세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교회론은 안내표식과 같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회를 배라고 한다면, 그 배가 어디로 갈 배인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배인지, 승선을 해도 좋을 배인지, 승선을 해서는 안 될 배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안내표식과 같은 것이다. 이점에서 교회론은 배에 오르지 아니한 교회밖에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 승선해야 할 사람과 승선해서는 안 될 사람이 나뉘진다. 또 승선하지 아니할 사람이라도 그 배의 성격이나 목적지를 알 수 있게 해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미리 막을 수가 있다.

둘째, 교회는 배의 방향키와 같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회론이 정립되어 있을 경우,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배에 오른 사람들은 가는 방향과 목적지를 알고 승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회항하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고, 교회가 불필요한 곳에 힘을 쏟지 않아도 되고, 목적지가 다른 사람을 붙잡고 불필요한 설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저런 핑계로 승선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쓴맛을 보지 않아도 된다.

셋째, 교회도 복음도 하나의 상품으로 볼 필요가 있다. 굳이

배와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천국행 여행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어떤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한다면, 먼저 자기 교회가 파는 상품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 상품을 잘 모르고서는 고객의 마음을 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한다면, 먼저 자기 교회만이 갖는 특성화된 상품 또는 차별화된 상품이 있어야 한다. 남들이 잘 파는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쪽에 끌리하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 남들이 상품을 잘 파는 이유는 우리 상품보다 질이 좋아서라기보다, 혹시 그들이 자기 상품에 대한 깊은 지식과 자긍심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남들이 가진 것보다 더 좋은 상품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록 브랜드 이미지는 많이 떨어지지만, 남들보다 더 많이 팔지 못하는 데는 자기 상품에 대한 연구나 자긍심이 부족한 탓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자기 상품에 대한 자긍심이 필요하다. 우리의 것이 좋다는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 고객을 설득시킬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동안, 남들은 우리 것의 진가를 알아채고 우리의 것을 가져다가 발전시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아마 성만찬일 것이다.

만일 어떤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한다면, 관리도 잘 해야 한다. 작은 일을 소홀히 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쥘신을 삼아 팔던 부자(父子)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잔털을 제거한 후에 시장에 내다 잘 팔았고, 아들은 잔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팔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상품의 포장, 진열 등은 상품 못지않게 판매에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남대문 시장에 내다 팔면 싸구려 상품으로 취급받게 되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백화점에 내다 팔면 비싼 상품으로 둔갑되지 않는가?

이런 세 가지 점에서 교회론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인식하에서 서두에서 말한 네 가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1. 교회의 머리와 몸(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이어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인가?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깔고 말씀의 주제인 ‘교회의 머리와 몸’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회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옳을까? 이 점에 대해서 고민했던 선배 신앙인들이 적지 않다. 교회분열의 상처에 민감했던 사람들일수록 더욱 그랬다. 1927년 1월에 성낙소라는 구세군 사관이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름을 구세군교회라 하지 않고, ‘기독교교회’ (基督之教會)라 하였는데,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던 선배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이든 단체든 이름이 없는 경우는 없다. 작명철학이 성행하고 있고, 또 이름대로 된다는 속설이 있듯이 이름은 중요하다. 개인의 이름은 아버지의 성씨와 향렬(行列)에 좌우된다. 그러나 단체의 이름은 그 단체의 성격이나 구성원들에 따라 결정된다.

교회는 자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동호인들의 모임하고 어느 정도는 성격이 비슷하다. 낚시인회, 축구인회, 테니스인회 등과 같이 모이는 사람들의 성격에 비교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회’가 된다. 실제로 ‘그리스도인회’ 즉 ‘그리스도인의 교회’ (Christian Church)라 부르는 독립교회들이 미국에만 10,000개가 넘는다. 동호인 성격의 교회 이름들은 이밖에도 ‘침례인의 교회’ (Baptist Church), ‘방법론자의 교회’ (Methodist Church), ‘장로의 교회’ (Presbyterian Church), ‘메노나이트인의 교회’ (Mennonite Church), ‘재림론자의 교회’ (Adventist Church)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이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분열된 교파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일 뿐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내쫓기고, 교파의 창설자가 주인노릇을 하

게 되고,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교단의 교리들이 우선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이름들이 아니다. 성서적인 이름들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한편 교회는 동호인들의 모임하고는 달리 모임의 소유주인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 (Church of Christ)로도 불릴 수가 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교회’ 라고 불리는 독립교회들이 미국에만 20,000개가 넘는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의 교회’ 이거나 ‘그리스도의 교회’ 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소유자의 개념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값으로 사셨고,

둘째, 설립자의 개념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으며,

셋째, 통치자의 개념에서 볼 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넷째, 공동체의 특성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다섯째, 사도시대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불렀다.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즉 신앙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모이는 토지나 건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건물은 교회공동체가 모이는 집회소 또는 예배당이지, 교회 그 자체는 아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란 말이 일상적으로 예배당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의 모임 그 자체를 말한다.

먼저, 소유자의 개념부터 알아보겠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과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는 말씀이 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 하였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에서 ” 너희” 란 말은 교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

회는 값으로 샀다는 뜻이 된다. 그러면 어떤 값으로 샀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피 값”이라고 대답해 준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자기 피”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밝힌 대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그리스도의 피 곧 “언약의 피”를 말한다. 이 그리스도의 피 곧 언약의 피로 인하여 교회는 언약공동체 또는 선민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유자의 개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우리들의 이 모임 또는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둘째, 설립자의 개념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나온다. 이 신앙고백 위에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듣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부활 후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요 21:16)고 세 번씩이나 부탁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 감람산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고 명령하셨다. 이들 말씀들은 교회의 설립자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인간이 설립자가 아니다. 목사가 설립자가 아니다. 장로가 설립자가 아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설립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군들에 불과하다. 일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말씀하셨고, 죽기까지 충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고 우리 주님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약속하셨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게 맡길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 주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으로 믿는다. 각자의 사명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스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치자의 개념에서 볼 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고 하였다.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고 하였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라고 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머리가 너무 많지 않나 쉽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주인인 경우도 많고, 장로집사가 주인인 경우도 많아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의 주인들이 많다보니, 교회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 성도들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

넷째, 공동체의 특성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고 하였다. 골로새서 1장 24절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 몸의 지체들(구성원들)” 이라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말씀하였다.

이 몸과 지체들에 관해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의 직분과 지체들이 갖는 다양한 기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로마서 12장

4-5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2장 12-20절까지를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고 하였다.

여기서 몸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교회를 그리스도와 동일시 한 말이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데,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지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말하는 것인데, 목사, 장로, 집사, 성도일 수도 있고, 신체의 기능들이 다 각기 다른 것처럼 교회의 지체들은 다양한 직분과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능들은 다 상호보완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몸인 그리스도에 붙은 우리 성도들은 각자가 맡은 기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각자는 교회의 몸이 아니고, 그 몸의 지체라는 점을 겸손하게 생각해야겠고, 각자가 제 기능을 건강하게 발휘할 때, 온몸이 성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서시대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

나라.” 는 말씀이 있다. 신약성경에 언급된 교회 호칭들, 예를 들면, 예루살렘교회, 안디옥교회, 에베소교회, 로마교회, 갈라디아교회 등은 지역 이름 다음에 소유격 명사 ‘그리스도의’ 라는 말이 생략된 것으로 보면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다. 신령한 복들 가운데서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5절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7절 :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주셨다.

9절 :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뜻을 알게 하셨다.

11절 :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13절 :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침을 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2. 교회의 기초(신약성경을 표준삼는 교회)

왜 신약성경을 표준삼는 교회이어야 하는가? 왜 신약성경을 표준삼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왜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성경을 표준삼는 교회인가?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교회의 기초’ 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밝힌 대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정의 한식구가 되었다.

교회란 바로 이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정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밝힌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가정에 찾아온 손님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3장 6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가정, 즉 교회의 설립을 거룩한 성전건축에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래 교회란 ‘따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란 뜻이다. 교회당을 교회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권속을 일컬어 교회라 부른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가정을 성전에 비교해서 그 기초와 건물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교회를 거룩한 성전에 비교했을 때, 그 건물의 기초는 사도(예수님의 제자)들과 선지자(예언자)들이라고 말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말한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기초부분에 놓이는 모퉁이 돌이라고 말한다. 모퉁이 돌은 고대 이스라엘의 건축에서 집이 들어설 네 모서리에 놓는 거대한 돌을 말한다. 이 돌을 중심으로 집의 방향과 각도가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의 주춧돌에 해당된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벽돌 한 장 한 장이 놓여져서 건물이 형성되듯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했다.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장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다. 이 말씀으로 보아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규범이자 표준임을 알 수 있다.

그분들의 가르침과 전통들은 오늘날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

다. 물론 신약성경이라 해서 그분들의 가르침과 전통들이 빠짐 없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에서 강조될 필요성이 있었던 특별한 부분들만 골라진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는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런데도 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성경의 가르침보다도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성경의 가르침이나 인위적인 교회전통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이는 분명코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과 바울은 이점을 엄히 꾸짖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고 하였고, 8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다.” 고 하셨으며, 또 13절에서는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고 책망하셨다.

바울은 계시(갈 1:11-12; 고전 11:23-25; 엡 3:1-6)를 통해서 예수님께 받은바 교훈만을 가르치면서 사도의 가르침과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8-9절에서 엄하게 꾸짖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사도의 가르침과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다. 그 사실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비밀인데, 이 비밀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밝힌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한 몸 교회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을 나누는 자들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신비한 비밀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계시되어졌고, 다른 세대들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란 점이다.

사도들이 얼마나 특별한 은총을 입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전통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전한 신약성경이 교회의 기초요 믿음과 실천의 규범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성경을 이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위한 예표와 모형 또는 그림자로 보았다. 바꿔서 말하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교회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것의 그림자나 모형을 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전통 위에 바르게 서야 한다.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제자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은 분들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나온다. 이 신앙고백 위에, 바꿔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님은 베드

로의 신앙고백을 듣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교회설립과 관련된 특별한 권세를 주셨고 또 그들의 가르침과 전통위에 자기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라고도 부를 수 있다. 소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Christian Church)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라 부르는 것이 성서적이고 옳은 명칭이다.

또 하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완성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공동체란 점이다. 바뀌서 말하면, 교회는 완전한 흠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고 세움을 받고 지어져 가는 공동체란 점이다.

에베소서 1장 13-14절의 말씀대로, 교회는 성령의 보증과 인감 찍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 축복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공동체이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약속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공동체이다. 그 어느 공동체도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완전하여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서술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성경교회이기를 고집한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존중한다. 사도들의 예배전통을 따르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정하여 놓으신 신약성경의 명칭만을 사용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만든 교리나 견해를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 신약성경의 명령들을 지키려 한다. 오직 성경만을 성도의 믿음과 실천의 표준으로 삼는다. 오직 하나님이 제정하여 놓으신 규정만을 지키려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집하지는 않는다(We are not the only Christians). 다만 그리스도인뿐(but Christians only)이라고 생각한다. 구약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도들의 전통대로 해석하며, 신약성경이 명령하는 것을 지키고,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며,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일들은 사랑으로 성도들의 견해의 차이를 피차에 인정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추구하는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으로 돌아가 그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일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바른 교회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주의 정신이요 신본주의 정신이다.

3. 교회의 지체들(오직 그리스도인뿐인 교회)

왜 오직 그리스도인뿐인 교회이어야 하는가? 왜 오직 그리스도인뿐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왜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인뿐인 교회인가?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교회의 지체들’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교회의 지체들이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에 딸린 각 기관들에 해당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란 뜻을 갖는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Christian)은 아름다운 이름이요, 오래 전에 예언된 이름이며, 그 예언대로 성취된 이름이다. 또 ‘그리스도인’은 성서시대에 사용된 이름이며 천거된 이름이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

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다.

야고보서 2장 7절을 보면,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하지 아니하느냐?”란 말씀이 있다. 이 말씀에서 “너희”란 말은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그리고 “저희”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억누르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부자(아마도 고리대금업자)들을 말한다. 그리고 이 말씀의 전체적인 뜻은 부자에게 아첨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을 외모만 보고 편애하는 것은 죄를 짓는 행위일 뿐 아니라, 부자들은 그들의 아첨을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훼방”한다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야고보서 2장 7절의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바”란 글의 뜻은 “너희가 그 이름으로 불리는”이란 뜻이다. 그런데 그들은,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성서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호칭되었다.

이 이름을 야고보서 2장 7절은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했다. 여기서 “아름다운”이란 말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또는 ‘고상한’이란 뜻이다. 우리는 이 말을 ‘신성한’이란 단어로 바꿔서 쓸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 이름이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둘째,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은 예언되어진 이름이다.

이사야 62장 2절을 보면, “~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에서 “새 이름”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사야 62장에서 몇 가지 특징으로 설명되고 있다. 3절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면류관과 왕관으로, 4절에서는 “헝시바 “라 하였는데, 이는 ‘내 기쁨이 그 나라 안에 있다’ 는 뜻이다. 그리고 5절에서는 신부로, 12절에서는 거룩한 백성, 구속받은 자, 찾은바 된 자, 더 이상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이사야 62장의 말씀이 장차 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한 예언의 말씀인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다. 베드로전서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라고 적고 있다.

셋째, ‘그리스도인’ 이란 이름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이름이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고 적고 있다. 이사야 62장 2절에 예언된 “새 이름” 이 신약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안디옥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인’ 이란 이름은 사용된 이름이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 아그립바 왕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이 시기에 벌써 ‘그리스도인’ 이란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다섯째, ‘그리스도인’ 이란 이름은 천거된 이름이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지체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다. 침례교인도 아니고, 감리교인도 아니고, 장로교인도 아니고, 성결교인도 아니고, 안식일교인도 아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름이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인’ 이란 이름 말고 다른 호칭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성도” (롬 1:7), “형제들” (약 1:2), “자녀들” (갈 3:26),

“제자들” (요 15:8), “친구들” (요 15:15)이다. 그러나 이들 호칭들은 전혀 새로운 이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호와와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은 오직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첫째,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대상들이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풍속 곧 이 생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좇고, 사단을 좇아 살았기 때문이었다. 또 죄의 성질을 지닌 육체의 욕구들을 채우려 했고, 육체의 욕망과 생각들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죄인이었을 때에 죽음에 해당되는 일, 죽이는 일, 또는 죽임의 일에 힘썼던 것이다.

둘째, 에베소서 2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죽임의 일과는 달리, 언제나 충만한 사랑으로 살리는 일, 곧 살림의 일을 하셨다.

4-5절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신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또 육체의 욕망을 좇아 죽임의 일만을 일삼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6-7절을 보면, 하나님은 또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세워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는 특권을 주셨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조찬기도회에만 초청되어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하물며 천국 보좌방에 초청되어 하나님께 함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다면 그 얼마나 큰 영광이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영광에 참여할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

또 8-9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

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며, 진노의 대상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셋째,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큰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셨을까? 그 이유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잘 드러나 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으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2-3절을 보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라 하였다. 분열은 죄악이다. 에베소서 4장 4-6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분이시오,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분이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하나가 아닌 것은 분열이요, 분열은 죄악이다. 분열이 죄라면, 마땅히 기독교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 기독교를 통일시키는 길은 오직 한 가지이다. 교회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로 하고, 성도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것이다. 만일 장로교회나 장로교인, 감리교회나 감리교인, 침례교회나 침례교인, 성결교회나 성결교인 등으로 통일을 시도한다면 결코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켜 가야한다.

에베소서 4장 11-12절을 보면,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는 고사하

고 오히려 쪼개어 분열시키고 있다. 교회의 지체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외의 침례교인, 감리교인, 장로교인, 성결교인, 안식교인 등은 한 몸 그리스도를 쪼개어 분열시킨 결과이다. 성경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고 하였지, 분열시키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에베소서 4장 13-14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고 하였다. 또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고 하였다.

이들 말씀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기초인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참된 것을 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회는 한 몸이다. 한 몸이 쪼개질 수는 없다. 교회의 머리는 한분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여럿일 수는 없다. 교회의 헌법은 한권 성경책이다. 성경이외의 가르침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천의 규범이 될 수 없다. 교회의 지체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름이며, 성서시대에 불려진 이름이다. 그러나 다른 이름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외의 이름으로 성도를 부르거나 자랑하거나 자궁심을 갖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행위이자 죄를 범하는 일이다.

4. 빛과 생명의 복음(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왜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어야 하는가? 왜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왜 그리스도의 교회는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가? 이런 질문들을 바탕에 깔고 말씀의 주제인 ‘빛과 생명의 복음’에 관해서 살펴보고 한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을 뜻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계획하신 구원의 소식을 말한다. 이 복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죄 값을 받고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으로써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으며, 흑암에 처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셨고,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을 살려내셨다는 기쁜 소식이다.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성화사역이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또한 의롭다고 칭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인도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신다는 기쁜 소식이다.

복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복음의 목적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고 빛과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은 복음서의 기록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요 20:31)고 하였다.

요한이 밝힌 이 목적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하다. 흑암에 사는 사람에게 빛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고, 죽음에 처한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보다 더 기쁜 것은 없을 것이다.

호롱불이나 촛불에 의존하던 시절, 집집마다 전기시설을 마치

고, 백열등에 빛이 밝혀지던 날, 온 마을이 축제분위기에 휩싸여 덩실덩실 춤을 추던 때가 있었다. 1998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주제 사라마구의 작품 가운데 『눈먼 사람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은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눈이 멀고, 눈먼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눈이 멀고,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시민들이 다 눈이 멀어버리는 비극과 눈먼 상황에서 벌어지는 참혹함을 그렸다. 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육체적인 장애이든, 영적인 장애이든, 사회적인 병폐이든 간에 흑암에 있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고, 흑암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온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죽음에 직면했던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이 닿고 있다는 소식 또한 기쁜 일이다. 그 상황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혹은 영적인 것이든 간에 죽어간다는 현실은 비참한 것이고, 죽음의 현실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른다는 소식은 그 자체가 큰 기쁨이요 안도이다.

이 복음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주제들,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신약성경을 표준삼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인뿐인 교회’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또는 존재하는 방법이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빛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말은 교회의 존재목적은 분명하게 알리는 표어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나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온 땅에 빛과 생명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또한 온 땅에 빛과 생명을 전하라는 것이었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변화이다. 이 변화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하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일컬어 ‘로고스’라 하였는데, 로고스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면서도 스스로는 결코 변치 않는 진리를 말한다. 요한복음은 이 불변의 진리 ‘로고스’를 빛과 생명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요 1:18)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불변의 진리 로고스가 흑암과 죽음의 세계에 주는 변화 또는 불변의 진리 로

고스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일컬어 빛과 생명이라고 하였다.

빛과 생명에 반대되는 개념은 어둠과 죽음이다. 어둠과 죽음은 세상의 특징이다. 세상은 자연의 법칙이 지배한다. 자연의 법칙은 혼돈의 법칙이요, 죽음의 법칙이요, 엔트로피(entropy)의 법칙이다.

요한복음은 이 마법의 굴레를 벗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그 길은 빛과 생명 되시며, 변화의 주체이면서도 자신은 변치 않는 ‘로고스’요,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변화이다. 이 변화의 출발은 회개이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에서 던진 첫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다. 여기서 ‘천국’이란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말한다. 이 천국은 또한 ‘교회’를 뜻하기도 한다.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란 말은 ‘새 시대가 열렸다.’ ‘교회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회개’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시대에 걸맞은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를 주제로 말씀하고 있다.

제2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맹물은 고급 포도주로 바뀐다. 제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는다. 제4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혼혈인 사마리아 여성은 거듭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방인 헤롯 안디바의 신하는 아들의 생명을 구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난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의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세상에 대한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방인의 아들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다.

제5장에서는 율법의 희생자였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

나 질병의 고통과 율법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변화를 겪게 되고, 제6장에서는 굶주린 민중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없음’이 ‘있음’이 되는 창조를 체험하게 된다. 또 어두운 밤에 폭풍을 만나 죽음에 직면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어둠’이 ‘빛’이 되고, ‘죽음’이 ‘삶’이 되는 변화를 경험한다.

이제 요한복음의 총체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건이 남았는데, 제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빛을 보게 되고, 제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온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일컬어 “세상의 빛” (8:12)이라고 하셨고, 생명을 주는 “사람들의 빛” (1:4)이라고 하였다. 흑암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9:33) 또는 “주님” (9:38)으로 고백할 수 있다.

제9장의 소경치유이야기를 제5장의 38년 된 병자치유와 비교해보면, 이 두 명의 장애인들이 모두 안식일 날에 각각 베데스다와 실로암 연못에서 고침을 받고 있고, 이 일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며, 38년 된 병자치유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맹인치유에서는 “빛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인도되고, 죽음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

복음을 가진 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에 앞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말씀은 또한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도하다. 이 사명에 따라서 교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

첫째,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막 16:15; 행 8:4). 둘째, 제자를 삼아야 한다(마 28:19). 셋째,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 침례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마 28:19). 넷째,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한다(행 5:20; 마 28:20). 이는 에베소서 4장 12-14절의 말씀대로,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며,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을 전달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인가? 2002년 8월 7일 『크리스치엔너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지가 보낸 이메일 내용에 다음과 같은 질문과 반응들이 실려 있었다. 그 내용을 여기에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써 마치려고 한다.

[질문]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라는 말이 누군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답]

제임스 : 모든 사람에게 백만 달러처럼 대우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돈보다 무한히 더 큰 가치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알렌 박사 : 그리스도의 특성을 성실히 실행하라.

게리 : 누군가가 당신에게 못되게 할 때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친절을 베풀라.

렐리 : 언제 어느 곳에서든 모든 사람에게 미소 짓고, 사랑하

며, 복이 되라.

데일 : 극도의 겸손과 환대를 보이라.

비크 :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고 투명하며 참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

윌리엄 : 말은 언제나 많은 것을 전달하지 못하지만, 행위는 많은 것을 말한다.

헬런 : 순수하게 영향을 끼칠 기쁨의 일관된 태도를 지니라. 결국 우리는 기뻐할만한 많은 것을 갖지 않았는가!

로우리 :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라. 그리고 결코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나는 죄를 좋아해서는 안 되지만, 죄인을 사랑하겠다.

데이빗 : 불의를 대항하여 목소리를 높인다든지, 상처받은 이들을 돌본다든지, 우리 자신의 눈에 낀 들보를 지적한다든지, 우리들의 이웃들과 원수들을 위한 삶을 영위한다든가하여 원수들에게 사랑을 보이는 행위들.

리자 : 나는 직장동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어리석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그 성경 따위가 도대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궁금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발견한 그녀의 얼굴에 변진 표정, 눈가에 띠인 미소, 티 없는 기쁨이었다. 그리스도인의 표정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때때로 당신이 행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몰라도, 당신이 그것을 행할 때 보이는 얼굴 표정은 대단한 것이다.

글렌던 : 가까스로 또는 보통이 아닌 언제나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 요구사항 이상을 들어주라. 그러면 그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저 세상과 다르게 처신하라.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어떤 사람은 앞서 소개한 모든 대답들을 간결하게 요약해주는 말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당신은 마치 어떤 이들이 읽게 될 유일한 성경인 것처럼 매일을 살라(Live each day as if you are the only Bible some people will read).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모델인가? 당신은 당신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삶을 열심히 본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위에 언급된 그 어느 것도 진정으로 해내지 못할 것이다.

VIII.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서적인 이유

글 조동호 목사

1. '신약성경교회'이기를 고집한다.

'탱크주의'란 광고 전략을 채택하여 선풍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자 대우전자 사장과 회장(91-97) 및 KAIST교수(72-74)를 역임한 배순훈 박사는 평소의 지론이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이었다고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평소의 지론은 무엇인가? '단순한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Simple New Testament) 이다. 이는 잘못된 교회전통을 고치고, 기독교의 기본인 사도전통으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대부분의 이단 종파들은 구약성경을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한데서 비롯되었다.)

2.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존중한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크다고 참된 교회인가? 역사가 길다고 참된 교회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마르틴 루터와 존 칼뱅과 같은 개혁가들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펼친 때에 이미 기독교는 1,500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었고, 지중해와 흑해 연안의 온 동·서방 세계가 서방가톨릭교회와 동방정통교회를 국교로 하는 거대한 교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시급히 요구됐던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열쇠가 교회의 크기나 역사의 길고 짧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통과 비정통의 잣대가 교회의 크기나 역사의 길고 짧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참된 교회는 사도성에 있다. 사도성은 처음부터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는 잣대였을 뿐 아니라, 정경과 외경을 구별하는 잣대였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하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였다.

3. 사도들의 예배전통만을 따른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떤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말씀이 나온다. 오순절 성령강림이후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사도들이 전적으로 헌신했던 일은 네 가지였다. 이 네 가지 일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들 네 가지는 모두가 서로 동일하게 중요한 동등한 요소들이다. 사도들이 어느 것을 더 힘쓰고 어느 것은 덜 힘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동일하고 동등하게 힘썼던 예배의 내용들이며, 이들 네 가지 요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배를 완성시키는 네 모퉁이 돌들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에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교제에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떡 떤에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들 네 가지 요소들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가르침과 전통이므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배를 완성시키는 네 모퉁이 돌들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들 네 가지 요소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예배에서 소홀히 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성만찬이 빠진 예배는 불완전한 예배요, 하나님

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 성만찬을 자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주 하니까 경건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미국 사람들은 “too common”하다고 말한다. 매주일 설교하면 경건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흔한 일인가? 매주일 헌금하면 경건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흔한 일인가? 매주일 기도하면 경건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흔한 일인가?

4. 하나님이 정하신 (신약의) 명칭만 사용한다.

‘그리스도인’(Christian), ‘제자들’(Disciples), ‘형제들,’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 ‘장로,’ ‘집사’ 등 신약성경에 나오는 명칭만을 사용한다(No name but the Divine).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명칭은 성경적인 명칭일 뿐만 아니라(롬 16:16),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교회라 부름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를 ‘~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성서적이다. 그리고 오직 이 명칭 아래서만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통일된 국가나 단체나 조직의 명칭이 여러 개일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명칭은 하나이어야 하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나 ‘방법론자 교회’(Methodist Church) 혹은 ‘침례자 교회’(Baptist Church) 등으로 부를 수 없다.

5. 인위적인 신조나 견해를 따르지 않는다.

오직 복음만 주장한다(No plea but the Gospel). 오직 그리스도만 신조로 삼는다(No creed but the Christ).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성경의 신조를 구원하는 믿음의 조건으로 삼는다. 이 신조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로마서 10장 9절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부활을 믿는 신앙고백이 나타나 있다. 성경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으므로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기 전에 이 신앙을 고백한다. 구원하는 믿음은 성경해석의 결과물인 장문의 신앙고백서나 특정교리를 이해하고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교리로서의 믿음이기 때문이다(딤후 4:1,6; 유 3; 갈 1:23). 교리의 믿음은 '믿음의 내용', 즉 '지식의 믿음'을 말한다.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이다. 그러나 신학체계로써의 이 믿음은 종종 참 신앙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였다.

6. 신약성경의 명령을 지킨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아들 하나님에 의해서 창설되고, 성령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권능이 부여된 신성한 조직이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모여 예배하고, 교육하며, 교제하며, 흠어져 전도하며, 봉사하며, 구제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공동체의 목적은

첫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막 16:15; 행 8:4). 이 복음은 전도자와 개개인의 성도들에 의해서 전파되며, 어느 장소에서나 이루어진다(행 20:20; 5:42; 11:12-15).

둘째, 제자를 삼는 것이다(마 28:19). 제자 양육은 남녀노소 불신자들에게 접촉하여 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신앙인으로 또는 전도자로 육성하는 일이다.

셋째, 침례를 베푸는 일이다. 침례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자신의 구세주로서 입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베푸는 성례

이다(마 28:19).

넷째,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행 5:20; 마 28:20). 이는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결의 생활을 위한 것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7. 오직 성경만 믿음과 실천의 규범으로 삼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믿음과 실천의 규범이라고 믿는다(No book but the Bible).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Where the Bible speaks, we speak; where the Bible is silent, we are silent.) 다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약성경을 구약성경보다 우선시 한다. 총신대학교의 정훈택 교수의 지적대로, 구약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으로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예표로서 기능하며, 해석에 있어서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성경에 제한 받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구약성경이 탄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를 제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구약성경을 신약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읽는다면, 그는 구약성경을 오해하는 것이다.”¹⁾

8.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신약의) 규정만을 지킨다.

교회와 관련된 모든 규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신약성경의 규정만을 지킨다(No ordinances but the Divine). 하나님이 정하신

1) 정훈택, 『신약개론』(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15쪽.

신약성경의 규정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세운 교회의 조직, 치리, 예배 등의 전통을 말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을 세우는 방법에는 세 가지, 즉 '직접적인 명령,' '승인된 사도의 모범,' 그리고 '필요한 추론'을 적용한다. 직접적인 명령(direct command)은 충분히 명백하며, "침례를 받으라"(마 28:18-20)는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승인된 사도의 모범(approved apostolic example)은 성도들이 주님의 만찬(행 20:7)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날짜나 방법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추론(necessary inference)은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기"(마 3:16) 때문에, 그분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셨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진술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9. “우리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뿐이다.”고 믿는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단순한 신약성경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Simple New Testament)는 분명한 사명을 갖고 시작되었다. 16세기 종교개혁정신을 받들어 잘못된 교회전통을 고치고, 기독교의 기본인 사도전통으로 돌아가자는 의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종교개혁운동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신약성경기독교에로의 환원은 자칫 남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배타성을 강하게 떨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19세기에 이미 이러한 경험을 겪었다. 그 결과 “우리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뿐이다.”(We are not the only Christians, but Christians only.)라는 중대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10. 복음의 본질에는 일치를 주장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의 일

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점을 상기하면서 분열이 난무하던 19세기 초 미국에서 교회일치와 연합을 사명으로 처음 출발하였다. 그러나 성도들의 일치와 연합은 신약성경으로 돌아가는 문제와 성경해석의 문제들로 인해서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이다. 이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의 본질에는 일치를 주장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행할 것을 주장한다(In essential unity, in nonessential liberty, in all thing charity).